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金呂珠 教授指導

碩士學位請求論文

湖陰 鄭士龍의 詩 研究

2008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漢文教育專攻

朴淑嬉

# 湖陰 鄭士龍의 詩 研究

金呂珠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년 11월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漢文教育專攻

朴淑嬉

# 認 准 書

朴淑嬉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인

審査委員 \_\_\_\_\_인

審査委員 \_\_\_\_\_인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 논문개요

湖陰 鄭士龍(1491~1570 : 성종 22~선조3)은 조선전기에서 중기의 館閣文學을 이끌었던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사림파와 훈구파의 갈등으로 인해 己卯士禍가 발생했던 혼란한 시기였다.

조선 전기는 文을 중시하여 문학적 재능으로 벼슬에 오르고 가문을 장식했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文詞의 繁華만을 자랑으로 삼았으니, 燕山君에 이르러서는 문장의 浮華함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중종반정 이후 조광조를 중심으로 성리학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일어나 浮華해진 문풍을 바꾸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官僚文人들과 대립이 되어 결국 己卯士禍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湖陰 鄭士龍은 蘇齋 盧守愼, 芝川 黃廷彧과 함께 館閣三傑의 한 사람으로서 한 시대 館閣文學을 이끌었던 문인이다. 또한 “사룡의 문사가 당대 제일이다.”, “사룡은 문장으로 큰 명성을 이뤘으니 조사를 접대하며 가장 큰 칭찬을 받았다.”는 등의 실록의 기록을 통해서 당시 그의 문인으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짐작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진 湖陰 鄭士龍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그의 詩 작품 세계에 비하여 연구 결과는 ‘館閣詩’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湖陰의 관각적인 경향 이외의 다양한 작품 세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 하여 湖陰의 詩文集인 『皇和雜稿』의 「朝天錄」과 「皇華和稿」를 중점적으로 分析하였으며, 그 결과로 湖陰의 詩세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官僚期の 詩에서는 湖陰이 평생 사행과 접반 업무를 담당하며 보였던 활동상을 살펴보고, 동시에 詩를 통해 관직에 대한 염증을 은근히 표출한 면모도 살펴보아서 진솔한 작가 내면을 고찰하였다. 閑居期の 詩에서는 歸去來를 성취한 호음이 자연에의 귀의를 통해 자신의 내적 갈등을 치유하려고 한 면모를 살펴보았다.

이는 그동안의 연구가 湖陰의 館閣詩에 논의의 중점을 맞추던 것과 시각을 달리한 것으로, ‘官僚 鄭士龍’이 아닌 ‘人間 鄭士龍’을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여러 분류의 詩 세계의 고찰을 통해 그 동안 주목받아왔던 海東江西詩派의 독특한 형식과 색채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詩세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湖陰의 生涯 및 詩作品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그의 漢文學史의 位相이 재정립되기를 기대한다.

# 目 次

I. 序論 -----	1
1. 研究 目的 -----	1
2. 研究 現況과 方法 -----	1
II. 湖陰의 生涯와 背景 -----	4
1. 生涯 및 交遊關係 -----	4
2. 時代的 背景 -----	11
III. 湖陰의 詩 世界 -----	12
1. 官僚期의 詩 -----	12
1) 使行과 接伴 업무 중심 -----	13
2) 관직에 대한  염증  표출 -----	21
2. 閑居期의 詩 -----	27
1) 歸去來를 통한 자연에의  귀의 -----	28
2) 山水에의 遊覽 -----	37
IV. 湖陰 詩의 文學史 意義 -----	48
V. 結論 -----	52
■ 參考文獻	
ABSTRACT	

# I. 序論

## 1. 研究 目的

湖陰 鄭士龍(1491:成宗22-1570:宣祖3)은 조선전기에서 조선중기의 館閣文學을 이끌었던 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 湖陰이 주로 活動 하던 16세기 朝鮮朝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다. 문학적으로는 건국초의 宋詩風이 成宗연간을 거치면서 唐詩風으로 전환되는 문학적 과도기였다. 詩創作에 있어서는 많은 文人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질적·양적인 성장기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 있었던 호음은 宋詩風이 唐詩風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어서 교량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館閣文學의 일인자이며, 양적으로 방대한 詩作品을 남기고 있는 漢文學史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건만 그의 업적에 비해 연구 결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사룡의 문사가 당대 제일이다1)", "사룡은 문장으로 큰 명성을 이뤘으니 조사를 접대하며 가장 큰 칭찬을 받았다2)."는 등의 실록의 기록을 통해서 당시 그의 문인으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남용익으로부터 蘇齋 盧守愼·芝川 黃廷彧과 더불어 館閣三傑의 명칭을 얻었으니, 館閣文人으로서의 중요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호음의 詩文集인 『皇華雜稿』의 「朝天錄」과 「皇華和稿」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使行과 接伴 업무를 수행하여서 鄭士龍이 보여 주었던 활약상의 일 단면을 살필 것이며, 한편으로는 관직생활을 떠나서 전원 속에서 유람했던 때의 詩世界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그 동안의 연구가 호음의 館閣詩에 논의 중점을 맞추던 것과 시각을 달리한 것으로 '官僚 鄭士龍'이 아닌 '人間 鄭士龍'을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통해 湖陰의 生涯 및 詩作品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그의 漢文學史적 位相이 재정립되기를 기대한다.

## 2. 研究 現況과 方法

湖陰은 詩作에 뛰어나서 그의 生涯 동안 지은 詩가 많은데, 그의 시들은

1) 『中宗實錄』, <38년 10월>, "士龍文詞當今第一"

2) 『宣祖修正實錄』, 四卷, <三年庚午>, "士龍以文章致大名, 僉接詔使, 最被激賞"

『皇華雜稿』에 수록되어 있다. 그는 일찍이 중국의 사신으로 가서 문명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동안 중국인과 주고받는 시가 많았다.

湖陰의 詩文集은 모두가 8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시는 약 2,459수 수록 되어있다. 권1에서 권6까지는 詩로 이루어져있고, 권7은 碑誌 권8은 雜著·附錄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湖陰雜稿』는 1551년 自編한 원고를 바탕으로 增便하여 1577년경에 저자의 제자들에게 의해 간행되어 졌다고 한다.

卷1에는 <玉堂錄> 시 14편, <觀省錄> 시 43편, <宜春日錄> 시 41편, <北上錄> 시 23편, <己丑雜錄> 시 49편 실려 있다. 卷2에는 <洪陽錄> 시 33편, <省墓錄> 시 15편, <朝天錄> 시 115편, <新安日錄> 시 36편, <龍灣日錄> 시 63편 실려 있다. 卷3에는 <宜春雜錄> 시 50편, <賜告錄> 시 49편, <庚子錄> 시 11편, <關東日錄> 시 82편, <附篇> 시 3편, <癸酉酬唱錄> 시 22편, <甲辰 朝天錄> 시 6편, <僊接日錄> 시 52편 실려 있다. 卷4는 <秋官錄> 시 22편, <湖西奉仕錄> 시 2편, <樞府日錄> 시 44편, <敦寧日錄> 시 23편, <南宮日錄> 시 81편, <應製錄> 시 26편 실려 있다. 卷5는 <雜稿> 시 99편, <雜記日錄> 시 170편 기재 되어 있다. 卷6은 <拾遺錄> 시 70편, <皇華和稿> 시 117편 기재 되어 있다. 卷7은 文으로 <碑銘> 36편이 있다. 卷8은 <筭> 1편, <記> 1편, <契軸後> 1편, <文> 3편, <銘> 1편, <表> 1편, <箋> 1편, <手柬> 1편, <議> 12편, <問> 1편, <禦眠楯後> 1편, <調使> 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湖陰雜稿』에 수록되어 있는 詩들의 형식은 五·七言詩이며, 그 외의 賦나 辭, 樂府體 등은 나타나지 않는데 특히 그가 자부했던 것은 七言律詩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록된 詩 자체를 살펴보면, 1551년 호음 자신이 직접 쓴 서문을 쓰고 편집한 것을 시작으로 卷四의 「南宮日錄」까지는 대체로 연대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뒤로는 앞 詩卷의 취한 편제 방식과는 다르게 시간적·내용적 동질성이 없이 구성되어 있다. 그 원인은 후대의 문인들에 의해 호음의 산일된 詩들을 모아 보충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湖陰은 『湖陰雜稿』만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湖陰의 깊이 있는 文學觀, 思想을 살펴보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이것은 湖陰 文學에 영향을 준 交遊文人들의 개별 문집의 검토를 통해 보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湖陰 鄭士龍의 연구의 시발점은 1990년대 尹采根, 徐守鏞, 李鍾默에 의해 이루어졌고, 李惠榮, 張允赫, 姜慧仙에 의해 정사룡의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尹采根<sup>3)</sup>은 鄭士龍의 生涯와 그의 문집의 체재를 자세히 설명하여 작가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호음의 정치적 삶과 그에 따른 自然 인식의 변모양상의 논의에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에 시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은 소홀하였다.

徐守鏞<sup>4)</sup>의 연구는 호음에 대해 처음으로 시도한 作家論적 研究라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만, 그의 시세계에 있어서는 그의 館閣文人으로서의 면모에 대한 부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 한계를 가진다. 또한 李鍾默<sup>5)</sup>은 海東江西詩派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파악한 후에 정사룡의 작품 세계를 '西崑體의 결합에서 나온 奇古의 美學'이라고 규정짓고 있지만 湖陰의 내면적인 시세계의 특성을 살려내는 것보다는 海東江西詩派의 詩의 形式에 치우쳐 詩作法의 分析에 편향 되어진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李惠榮<sup>6)</sup>의 연구는 조선조 漢文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館閣文學의 실체를 정립하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호음 시세계 전반을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張允赫<sup>7)</sup>은 기존의 논의들이 주로 湖陰의 館閣文學으로서의 면모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하고, 그의 내면세계를 살펴보기 위해 閑居期에 쓰여진 詩作品들을 중심으로 詩世界를 고찰하였다. 그러나 호음에게 간과할 수 없는 館閣文人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姜慧仙<sup>8)</sup>의 연구는 기존 논의를 적극 수용하면서, 湖陰의 관각 문인적인 면모와 그 이면에 배경하고 있는 시세계를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또한 詞章중시 풍조 속에 들어난 관각시의 특징적 면모와 관각의 활동과 그 이면에 놓인 불안한 내면세계를 잘 조명해내고 있다.

---

3) 尹采根, 「鄭士龍의 詩의 研究 自然人識의 變貌樣相을 中心으로」, 高麗 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0

4) 徐守鏞, 「湖陰 鄭士龍 文學研究」, 계명 한문학 연구회, 1990

5) 李鍾默, 『海東江西詩派 研究』, 태학사, 1995

6) 李惠榮, 「湖陰 鄭士龍의 詩 研究」, 忠南 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5

7) 張允赫, 「湖陰 鄭士龍의 詩 研究」, <閑居期 中心으로>, 成均館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8

8) 姜慧仙, 『韓國漢詩作家研究 4』, 「鄭士龍의 생애와 시세계」, 1999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湖陰 鄭士龍의 詩世界와 詩文學의 특징을 그의 官僚期 詩作品과 閑居期 詩作品의 분석을 통해 고찰 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된 湖陰의 生涯와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館閣文人들과 交遊상황을 살펴보고, 아울러 이것의 시대적 배경이 湖陰의 詩作品에 미친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 湖陰의 詩世界를 官僚期와 閑居期の 詩로 나누어 탐구하고자 한다.

첫째, 官僚期の 詩에서는 평생을 사행과 접반 업무 속에서 화려했던 관료 생활과 그 이면에 드러나는 관직에 대한 염증을 표출하여 작가의 한탄스러운 내면세계를 고찰하고자한다,

둘째, 閑居期の 詩에서는 전원생활을 통한 귀거래를 갈망하며 자연의 의의하여 치유하려는 면모와 산수를 유람한 詩들을 分析하여 작가의 내면적 詩世界로 접근을 시도하겠다.

제Ⅳ장에서는 湖陰 鄭士龍의 詩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당대와 후대에 미치는 文學史的 意義를 檢討하고자 한다.

제Ⅴ장 結論에서는 湖陰의 詩에 대해 검토한 것을 정리하고, 문학적 특징을 제시하며 다음의 연구자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Ⅱ. 湖陰의 生涯와 背景

### 1. 生涯 및 交遊關係

鄭士龍의 文集인 湖陰雜稿나 다른 문집에서는 湖陰의 行蹟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의 生涯는 朝鮮王朝實錄과 주변 작가들의 문집을 토대로 살펴서 정리해 보아야 한다.

鄭士龍(1491~1570)은 전북 고창에서 태어났고 80生涯를 살았으며, 詩文에 능하고 音律에 밝은, 조선 전기와 중기시대의 문신·문인으로서,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운경(雲卿), 호는 호음(湖陰), 부사 광보(光輔)의 아들이며 영의정 광필(光弼)의 조카이다.

湖陰의 부친 鄭光輔(1457-1524)는 蔭職으로 出仕하여, 정선, 풍기, 금산군수

와, 창원, 연안부사를 지냈고, 뒤에 의령에서 여생을 보냈다.

湖陰의 숙부는 鄭光弼(1457-1538)로 1504년 甲子士禍때 왕에게 極諫을 하다가 아산으로 귀양 갔고, 1506년 중종반정에 다시 부제학에 복직되어 대사헌, 우의정, 영의정에까지 올랐다.

湖陰은 1509년(中宗 4)에 생원이 되고 그 해 별시 문과에 병과로 장원하였는데 이 당시 나이가 겨우 약관이 채 안되었을 때이다.

1512년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 1514년 賜暇讀書하였고, 1516년 황해도 도사로서 文科 中試에 장원하였으며,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 士林들의 세력이 약화되자 그 틈을 타서 直提學에 임명되었다.

1520년 1월 弘文館 直提學으로 복귀하여 종사관이 되어 원접사 李荇을 따라 중국사신을 접대 하면서 그의 명성은 높아지게 되었다.

1521년 부친상을 당하고도 護軍으로 서울에 있으면서 음행<sup>9)</sup>을 저질러 여러 차례 탄압을 받고서 의령으로 칩거하여 외로운 閑居生活에 들어가게 되었다. 다시 1523년 司諫을 통해 부제학이 되었다.

1528년 水軍을 사사로이 빌어 자신의 독을 쌓는 폐단을 일으켜 중앙 복귀에 실패하고 다시 洪州牧使에 임명되었다.

1533년에 와서 장악원 제조로 재기용 되는 기쁨을 누렸고, 그로부터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다. 그러나 이내 파직 된다.

1534년 冬至使로서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이에 중국 사신들과 酬唱을 통해 관각문인으로서의 지위를 내외에 공고히 하였지만, 접반업무 속에서 중국사신에게 조선의 기밀정보를 누설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湖陰은 心病까지 얻어 조정에서 파직되어 1542년까지 경남 의령에서 은거 하다가 외교적 필요에 의해 조정에 복귀하여 한성부좌윤을 지냈다. 그 해1예조판서로 승진이 되고 , 1544년 공조판서로 다시 冬至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554년 대제학이 되었으나 1558년 과거의 시험문제를 응시자에게 누설하여 파직되었다가, 다시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복직되고 이어 공조판서가 되었다.

1562년 다시 판중추부사에 전임되었다. 이듬해 士禍를 일으켜 사람을 제거하려는 이량(李樑)의 일당이라 하여 삭직 당했으며, 마지막으로 선조 8년에 이르러 판중추부사를 마지막으로 세상을 마쳤으니 정년이 80이었다. 이처럼

9) 『朝鮮王朝實錄』, <중종실록 21년 5월 11일 癸巳條>, "호음은 부친상을 당하고도 분묘를 지키지 않았고, 喪中에 잔치에 참석해 고기를 먹어 인륜을 어지럽혔으며, 칩의 집에 오래 있었다는 것으로 사헌부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湖陰의 일생은 그리 평탄하지 못했던 것을 그의 生涯를 통해 알 수 있다.

湖陰은 權勢 있는 家門에서 태어나 여유 있게 살았으며 문학에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서 중국의 외교에서 필요한 인물로 평가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았기에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가늠하지 못한 채 권력가들과 사귀어 음탕한 생활을 한 점을 미루어 부정적인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

『朝鮮王朝實錄』에 실린 호음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그의 卒記를 살펴보면

정사룡이 죽었다. 사룡은 문장으로 커다란 이름을 얻었으니, 중국의 조사들을 손님으로 접대하였는데 가장 큰 칭찬을 받았다. 어려서부터 부유함을 부러워하며 산업을 경영하는 재물을 모았고, 사치하고 아름다움만 스스로 받들어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부제학이 된 이후로는 번번이 탄핵을 입었는데, 마침내 권력 있는 간신들과 사귀어 어울렸다는 명목으로 대간의 의론이 준열해져 판중부추사의 지위를 삭적당한 채로 사망했다. 죽은 뒤에 광국 원종공신으로 직첩이 추복되었다. 그가 직위에 오르고 품계를 높인 것은 모두 글을 짓는 일로 상을 받은 것이다. 시종 문장의 화미함으로 뛰어난 더러운 이름 또한 가리는 바가 되었다.<sup>10)</sup>

비교적 긴 수를 누렸으나 살펴본 바와 같이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기도 했으며 시대가 시대인 만큼 仕宦의 길에 浮沈도 심한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음이 제기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文才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館閣文人으로서 일생을 살아온 그였기에 그의 文才는 館閣文人의 표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당대에 호음은 이미 館閣三傑<sup>11)</sup>으로 일컬어지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湖陰 鄭士龍은 권세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풍족하게 살았고 문학적인 재능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던 그로서는 경제적인 여유와 세속에 구애받지 않은 생활 모습으로 당시의 관점에서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인물로 부각되어 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와는 반대로 文學的 才能에 있어서는 문제점까지 가릴 수 있을 정도로 名聲을 떨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湖陰 鄭士龍의 부정적인 견해보단 긍정적인 면을 논할 것이다.

10) 『宣祖修正實錄』, 四卷, 4246면 참조

11) 湖陰 鄭士龍·蘇齋 盧守愼(1515-1590)·芝川 黃廷彥(1532-1607)을 칭하는 명칭

## 交遊關係

湖陰 鄭士龍의 生涯를 통해, 문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특징을 밝히는 데는 자료의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湖陰의 交遊關係를 토대로 그의 문학을 연구 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호음과 같은 시대를 살면서 원접사로써 그와 친분을 맺었던 관료로써 李荇, 申光漢 등의 관각문인들과, 그가 영향을 미쳤던 서얼 출신의 문인인 權應仁, 魚叔權 등을 중심으로 交遊關係를 살펴보고 湖陰의 思想的, 文學的 성격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湖陰은 文人이며 官僚라는 입장에 있어서, 官僚文人들의 문학을 접할 수 있었다. 士龍이 관직에 들어서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容齋 李荇<sup>12)</sup>이다.

첫째, 容齋 李荇은 湖陰 鄭士龍의 문학적 전통을 이었다고 자부할 만큼 館閣文人의 정통성을 지닌 인물이다. 허균이 조선 최고의 시인<sup>13)</sup>이라고 평한 그는 읍취헌 朴闇과 함께 海東江西詩派라는 칭호와 더불어, 또한 문집이 온전히 남은 이유가 있었기에 관각문인의 전통을 잘 보여주는 작가이다.

湖陰과 李荇은 중국사신을 맞이하는 원접사가 되어 湖陰과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가 湖陰의 詩에 和答하거나 次韻한 詩 그리고 직접 전해준 詩는 모두 8편이며 鄭士龍의 아버지 鄭光輔의 묘갈명도 지었다고 한다. 호음도 용재의 시집인 <南嶽唱酬集>의 跋文<sup>14)</sup>을 지었는데 발문에서 李荇과의 친밀한 관계를 명시하고 대제학을 이어받게 된 공로가 용재 李荇에게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호음이 비방과 탄핵으로 의령에 은거해 있을 때도 두 사람은 詩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돈독히 하였다<sup>15)</sup>고 한다.

新詩知繾綣	새로운 시 생각하는 도타운 정 알겠으니
細字看縱橫	작은 글자 종횡으로 본다
此日頭渾白	이날 바로 머리는 온통 하얘지니

13) 許筠, 『성수시화』, "我國詩, 當以李容齋爲第一"

14) 『容齋集』, 八卷, 558면 참조.

15) 張允赫, 「湖陰 鄭士龍의 詩 研究 閑居期 中心으로」, 成均館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8

何時眼共明	어느 때 눈 밖에 만날건가?
江湖魚得計	강호에서 물고기로 살길을 얻었고
鍾鼓鳥非情	종고의 새 비정하네
兩地無窮思	두 땅에 끝이 없는 생각
毫端寫不成	붓 끝으로 써도 다 이루지 못하네 <sup>16)</sup>

위의 시는 容齋 李荇이 의령에 은거 중인 士龍이 보낸 시에 次韻을 한 시이다.

당시에 容齋도 사림과의 비난을 받고 있었기에, 湖陰이 탄핵을 받고 조정에서 물러나 전원생활에 閑居하는 것을 부러워하며, 호음과 자신의 처지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는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五峯環洞府	다섯 봉이 동부에 둘러 있고
僧舍在深幽	승사가 깊고 그윽한 곳에 있소
未到長勞想	이 곳에 오지 않았을 땐 올 생각에 길이 시달렸더니
纔來已辦留	이제 겨우 와서 머물러 있소
佛光生寶殿	부처의 광명은 보전에서 나고
雲氣護龍湫	구름 기운은 용추에 두호하여 있소
風雨中宵至	바람과 비가 밤중에 오니
無眠戒共游	함께 유람하려던 일이 틀릴까 하여 잠 못들겠소 <sup>17)</sup>

이 시는 月精寺에서 容齋 선생의 시를 和韻하여 지은 시로 金剛山을 遊覽하면서 容齋선생의 뜻을 되새기며 함께 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容齋는 중종 15년 이후 거의 10년 동안 대제학을 맡으며 부제학을 지냈던 湖陰과 함께 당대 문학 풍조의 발전에 힘을 기울여 士林派에 의해 침체되었던 문학을 부흥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容齋 李荇은 황정건의 문학을 받아들이면서 황정건이 두보를 배운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여 蘇東坡 일색의 조선전기 詩壇의 경향에서 황정건과 진사도

16) 『次鄭雲卿韻 容齋集』, 二卷

17) 『湖陰雜稿』, 「關東日錄」, < 月精寺 奉和容齋韻 >

를 배움으로써 후대 唐詩 경향으로 바뀌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sup>18)</sup>

다음은 容齋 李荇과 湖陰이 나눈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海東江西詩派로 후대에 명명하기도 한다.

이행과 정사룡의 시는 대개 소식과 황정견을 배운 것이다. 정사룡이 묻기를, "사람들이 모두 내가 소식과 황정견을 배웠다고 하면서, 공이 소식과 황정견을 배웠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 하니. 이행이 답하기를 "그대는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만, 나는 그 뜻과 격을 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 한다" 고 하였다. 정사룡이 그 말에 수긍을 하였다.<sup>19)</sup>

둘째, 申光漢<sup>20)</sup>은 申叔舟의 孫子로 鄭士龍과 함께 賜暇讀書를 하였고, 기묘사화때 조광조의 일과라 하여 여주로 추방되어 18년 동안 은거 생활을 하다가 1538년 尹仁鏡이 이조판서가 되어 기묘사화에서 화를 입은 사람들을 등용하자 대사성으로 복직되었고 명종 즉위와 함께 우참찬이 되어 윤원형 등이 乙巳土禍를 일으키자 小尹에 가담하여 靈城君에 봉해졌다. 사룡도 윤원형 세력에 참여했었으므로 신광한과는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企齋 申光漢은 정치적인 입장 표명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湖陰과 더불어 당시 詞壇의 양대가 었다.

企齋가 鄭士龍에게 준 詩는 모두 4수이며, 특히 送雲卿佐黃海幕<sup>21)</sup>에서 말을 치밀하게 다듬어 웅결차고 기이한 문구를 얻는 시풍을 장기로 삼은 湖陰의 시적 재능을 "우리나라에서는 재명이 그대만한 이가 없네 라고 높이 평가<sup>22)</sup>하였고, 기재와는 문과급제 同班이 라는 인연도 있었기에 자신의 그 같은 精分을 詩로 표출하기도 하였다<sup>23)</sup>. 당시에 詩 문단에서 그와 신광한을 쌍벽으로 꼽기도 하였다.

18) 김기림, 「李荇의 詩世界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19) 『芝峯類說』, 九卷 " 李容齋鄭湖陰詩, 大低學蘇黃者也. 湖陰問曰, 人皆謂余學蘇黃, 而不謂公學蘇黃, 何也?, 容齋答曰, 君用其文字. 故人見而易知. 我取其意格, 故人不知之, 湖陰伏其言 "

20) 申光漢 - 조선 중기 문신. 을사사화 때 우참찬으로 소윤에 가담, 대윤의 제거에 힘써 위사공신이 되고, 같은 해 우찬성으로 양관의 대제학을 겸임, 영성부원군에 봉해졌으며, 좌찬성에 올랐다.

21) 『企齋別集』, 二卷 " 通籍聯班分已叨 幾回銀燭對揮毫 暫成幕佐垂鵬翼 要使邊氓識鳳毛 落日獨臨西海關 清宵遙望北辰高 吟囊領得江山句 莫惜斜封寄我曹 "

22) 『企齋別集』, 二卷, " 海內才名蔡君 "

23) 『企齋別集』, 二卷, " 호음을 황해도 마료로 보내며. "

또한 <次鄭湖陰統軍亭韻>에서 申光漢은 鄭士龍을 한마디로 '傑閣雄名'이라고 평했다.

申光漢이 죽고 난 뒤 湖陰은 만장을 써서 그의 문장이 雄詞였음을 말하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였다<sup>24)</sup>고 한다.

셋째로, 서얼 출신 문인의 權應仁<sup>25)</sup>과도 많은 교류가 있었다. 호음과 권응인의 만남은 그의 아버지 권희맹과 湖陰의 두터운 친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응인은 1546년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원접사였던 호음을 수행하는데, 霽湖詩話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기재되어 있다.

“송계 권응인이 일찍이 호음의 문하에 다녔었다. 호음이 대제학으로 있을 때에 원접사가 되어서 중국 사신을 압록강에 나아가 맞이했고, 송계가 막하의 보좌관이 되었다, 호음이 시를 지을 때마다 글자가 제자리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송계에게 묻고는 했다. 송계가 여러 차례 거기에 맞는 글자를 써서 뜻이 가하면 호음은 깊이 칭찬하였다.”<sup>26)</sup>

이와 같이 士龍은 權應仁의 시적 재능을 인정했고, 權應仁 또한 호음의 詩文 創作에 있어서 도움을 주었다.

넷째, 朝鮮 明宗때의 學者인 魚叔權<sup>27)</sup>은 서얼출신의 文人이지만 호음과 상당한 문학적 교류가 있었다. 어숙권은 詩에 안목이 뛰어났으며 仕官들의 言行, 技藝, 童謠등의 사실에 근거해 엮은 <稗官雜記> 筆記集을 집필한 그는 湖陰의 散文 作品을 代筆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삼당시인인 李達에게 두시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는데<sup>28)</sup> 이 사실을 통해 사회적 관습이나 형식의 틀에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4) 張允赫, 「湖陰 鄭士龍의 詩 研究 閑居期 中心으로」, 成均館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8, “餘事雄詞若水驪”

26) 『韓國詩話叢編』, 동서문화사, 1989. “權松溪應仁, 嘗遊鄭湖陰門下, 湖陰主文時, 以債相迎詔于江上 松溪在幕下, 每湖陰.”

27) 魚叔權 - 조선 중기의 학자. 崔世珍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한때 李珣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博學하고 문장에 뛰어나 詩評 詩論에 일가를 吏文 학자로서 이문과 중국어에 능하여 1525년(중종 20) 吏文學官이 되었다

28) 張允赫, 「湖陰 鄭士龍의 詩 研究 閑居期 中心으로」, 成均館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8. 『성수시화』, 319면 참조, “李益之少詩, 學杜詩於湖陰.” 『韓國歷代詩話類編』, 아세화 문화사, 1998.

이상으로 張允赫, 「湖陰 鄭士龍의 詩 研究 閑居期 中心으로」, 成均館大學校 碩士 交遊關係를 통해서 湖陰과 친분이 있던 館閣文人 李荇, 申光漢 뿐만 아니라 權應仁, 魚叔權등의 서얼출신의 문인과의 문학적 교류를 가졌던 것으로 보아 湖陰의 문학관은 개방적이고 신분의 차이로 인한 차별을 두지 않고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문인과의 교류를 중시했다는 면모를 보여준 것이다.

### 3. 時代的 背景

조선은 그 창업과 동시에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채택함으로써 문학 관념에 있어서도 朱子學이 문학위에 군림하는 載道觀(道를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도덕주의적 문학관)이 성립하게 된다<sup>29)</sup> 그러나 이러한 효용적인 문학관은 문학의 생산을 방해하는데 까지 이르지 않는하였으며, 도리어 문학의 內質에 있어서는 다양한 전개를 보이기도 했다.

湖陰 鄭士龍이 활동한 16세기는 조선이 구조적 위기를 드러내게 되면서 정치·문화적으로 균형이 흔들리게 된 시기이며, 권력체계의 분열 및 갈등이 土禍로 나타나 이로 인해, 정치·경제를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동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대외교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일 수 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사대교린에 詩作능력이 필요했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 당시에 이러한 문학이 이 시대에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면서 훈구파와 사림파 사이에 갈등으로 표출되어 본격적으로 당쟁의 양상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당쟁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湖陰은 세상을 떠났는데, 정치적 명분이 선명치 못하고 실천적인 면에서 허약함을 보였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 되기도 했다.<sup>30)</sup>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文學的·思想的 차원에서 심화 강화했던 사림파와 기교 수식을 통해 인간의 풍부하고 다양한 정서를 표출했던 훈구파와의 갈등이 빈번한 시대를 살다간 인물이 바로 湖陰 정사룡이다.

우리나라 漢詩는 고려중기 蘇軾을 중심으로 한 宋詩가 수용된 이래 16세기 이르기까지 宋詩가 주도적인 흐름을 장식했다.

宋詩風이라 하더라도 그 中心은 특히 蘇軾에 있었는데, 朝鮮이 建國되고

29) 『韓國漢詩史』, 대학사, 1996.

30) 李惠榮, 「湖陰 鄭士龍의 詩 연구」, 忠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5.

나라가 안정되기에 접어들 15세기 무렵에는 蘇軾 일색에 벗어나 다양한 宋詩를 접하게 된다. 15세기 무렵 황정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져 16세기 전반까지 계속 이어졌다.

黃庭堅과 함께 江西詩派를 대표하는 陳師道の 詩集도 成宗 무렵부터 간행되기 시작하여 中宗과 明宗 연간에 거듭 간행된 바 있다. 황정견, 진사도 등 강서시파의 영향력은, 16세기를 대표하는 시인이 대부분 그 영향권에 있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조선의 詩業이 다양하게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은 成宗代를 전후한 시기로, 역대의 비평서를 볼 때 황정견, 진사도를 배운 사람들로 朴闇, 李荇, 朴祥, 鄭士龍, 盧守愼, 黃廷彥등 海東江西詩派의 새로운 면모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과는 달리 신광한, 나식, 김인후 등은 唐詩法으로 唐詩의 시단을 다채롭게 하였다.

七言律詩에서 특징을 보인 鄭士龍은 다음시기의 盧守愼, 黃廷彥과 더불어 館閣의 뛰어난 시인으로 추앙을 받는다. 湖陰은 이른바 널리 알려진 ‘湖蘇芝’ 三傑 중의 한사람이 되었다.<sup>31)</sup>

이상을 통해 湖陰은 政治·社會的으로는 계속된 士禍 등으로 불안정한 시기, 文學的으로는 조선전기 館閣派 중심의 詞章 경향이 士林派의 道學的 理論과 대립하던 과도기, 漢詩文學에 있어서는 많은 시인들이 배출되어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漢詩 作風에 대한 論議가 시작되었던 시기를 살았음을 알 수 있다.

## IV. 湖陰의 詩世界

### 1. 官僚期의 詩

湖陰 鄭士龍은 그의 官僚期에 주로 사행과 접반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가 수차례의 파직을 당하면서도 다시 조정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것은 사행, 접반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湖陰 만한 인물이 없다는 당대의 公論 때문이었다.

---

31) 『韓國漢詩史』, 태학사, 1996.

역사상 조선과 중국의 관계는 지극히 밀접했으니 특히 명나라의 관계는 더욱 그러했다. 당시 외교관계로 양국 간에는 사신들의 행렬이 빈번했는데, 당초에는 중국에서 환관을 사신으로 파견했다가 이후 世宗朝에 들어서면서 조선의 文化水準이 높아지자 世宗朝 32년부터는 文臣으로 그 일을 담당하게 했다. 명나라 사신이 도착하면 조선에서는 원접사를 파견하여 맞았는데, 이때부터 돌아갈 때까지 詩文을 창수하였다.

반대로 조선에서도 문재가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여 중국에 사행을 보내기도 하였으니, 이 들은 사신을 상대하는데 그 詩作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니, 당시 중국에서는 조선의 시문 창작수준에 감탄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업무에 늘 선발되곤 하였던 鄭士龍이니 그의 시문 창작에 뛰어난 능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以文華國'이라는 이념에 충실한 면모를 그의 작품세계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詞章的 색채의 외교적 수완이 뛰어난 詩作을 즐겨했지만, 湖陰은 이러한 반복적 삶에 일정의 염증을 가지고 있었다. 사행·접반 업무에 대한 회의와 고달픈 심사를 호소한 시작품도 적지 않게 보여 지고 있기 때문이다.

## 1) 使行과 接伴 업무 중심

館閣은 관청의 건물을 뜻하며 정치를 하는 장소이다<sup>32)</sup> 館閣詩는 주자학이 도입된 고려말기 이후부터 조선초기에 와서 완전히 하나의 정치세력과 더불어 문학의 형태로 형성되어졌다. 보통의 館閣詩 형태는 찬미와 규계의 양면성으로 전통적으로 문신들이 자신들의 詩에다 詩經의 전통적 장르인 雅頌의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군주의 덕성과 국가의 태평성대를 찬미하였다고 한다.

湖陰 鄭士龍의 館閣詩는 위의 이론적 성향을 바탕으로 화려하면서도 엄중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비록 잦은 외교사절로 인해 백성들의 피해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以文華國'이라는 시대적 이념 앞에서는 큰 문제로 인식되어지지 못했다, 물론 士로서의 기본에는 '愛民'의식이 존재했겠으나 湖陰 역시 '以文華國'이라는 이념 자체에 충실했던 것이다.<sup>33)</sup>

3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2005.

館閣文人으로서 鄭士龍은 使行과 接伴생활이 대부분이다. 탐닉한 酒宴과 遊覽생활을 즐기며 호탕한 詩를 쓰기도 하였지만, 鄭士龍 개인적으로는 使行과 接伴의 화려함 뒤에 회의와 고달픈 심사를 토로하기도 했다.

湖陰이 詩 創作에 있어서 다른 문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제시하고자 『湖陰雜稿』에 수록된 詩文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다.

< 見朝 >

五更靴滿午門霜	새벽이라 신발에 서리가 가득한데
擬躡仙班仰穆光	반열에 올라서 아름다운 광채를 우러러 보려했네.
管裏固知難覩大	악기소리에 큰 하늘을 엿보기 어려운 중 진실로 알았지만
葵心元不異傾陽	해를 향하는 해바라기 마음은 원래 다를 것이 없다네.
鷄人罷報宮鴉亂	시각을 알리는 소리에 궁궐의 까마귀 어지러이 날아가고
虎士虛陳輦路長	호위병이 흩어지자 여가가 길게 뻗어 있구나.
擲額謝霑光祿供	답전에서 내린 흡족한 음식을 사례하고 나오니
九關如海正茫茫 <sup>34)</sup>	구중 궁궐은 바다와 같아 정말 아득하구나

이 詩는 國朝詩刪<sup>35)</sup>에 <奉天門見朝>이라고 기재 되어있으며, 호음잡고 문집에는 朝天錄의 見朝라는 제목으로 1534년 동지사로 파견되어 천자의 조회에 참석하고 쓴 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湖陰의 일행은 이날 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sup>36)</sup>고 한다.

首聯에서는 五更이라는 시간적인 의미로 새벽을 나타내면서, 조회에 참석하려고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했다.

頷聯에서는 조회의 반열에 서서 황제의 풍채를 대하는 영광을 말하였다. 이 부분에서 특히 조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황제의 모습을 상상하며 중화세계를 동경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頸聯에서는 조회가 끝나고 황제가 성대하게 물러나는 모습을 그렸고. 下句에서 鷄人, 宮鴉, 虎士, 輦路, 光祿등의 궁중용어를 적절히 구사하여 館閣詩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33) 徐守鏞, 「湖陰 鄭士龍 文學研究」, 大東漢文學 3, 대동한문학회, 1990.

34) 『湖陰雜稿』, 朝天錄. <見朝>

35) 『국조시산』, 조선(朝鮮) 전기(前期)의 시인(詩人)이며 문신(文臣)인 허균(許筠)(1569~1618)이 조선(朝鮮) 시대(時代) 정도전(鄭道傳)부터 권필에 이르기까지 35명이 시 888수를 가려 뽑은 시선집(詩選集)

36) 『湖陰雜稿』, 朝天錄에 수록된 시의 題下에 <是日免朝>라 하였다.

尾聯에서는 황제가 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말하고, 明나라의 대궐이 바다처럼 넓다고 했다. 이 말은 황제의 은혜가 바다처럼 크다는 것을 상징하면서, 湖陰이 중화세계를 戀慕하는 감정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詩에서 海東江西詩派적 특징인 험박하고 기이한 글자를 사용함으로써 관각시의 특징적인 면에서 갖추어야 할 엄중함과 화려함이 고스란히 묻어난다고 할 수 있겠다.

< 朝謁 >

地底潛陽欲動灰	땅 밑에 숨은 별이 재가 되어 움직이고자 하는데
璇標貞月曉參催	북두칠성의 자루가 달에 끈게 서니 참성이 새벽을 재촉하네.
佩隨仗下旋班急	의장 아래에서 들리는 패옥소리는 반열을 돌아 급히 울리고
臚出螭頭贊曆開	아로새긴 계단에서 내려온 왕명은 책력을 바꾸네.
仙樂緩和清蹕闌	풍악소리 맑은 벽제소리와 함께 천천히 사라지고
袞袍高擁異香回	곤룡포는 신이한 향기를 띠고 높이 돌아가네.
呼嵩却殿緇黃退	만세소리 사라지고 중과 도사들 물러나니
簪履聲爲一道雷 <sup>37)</sup>	비녀와 신발소리 길 따라 울려 퍼지네.

이 詩는 國祖詩刪에 <朝謁是日頒曆>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湖陰 文集에는 <朝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朝會하고 황제로부터 冊曆을 하사 받고 쓴 시로 館閣詩의 一面을 보여주고 있다.

首聯에서는 만물의 소생을 장엄하게 표현하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頷聯에서는 황제로부터 책력을 하사 받는 장관을 화려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上句에 쓰인 隨·旋·急의 술어는 서로 긴밀한 호응 관계를 이루면서 신하들의 바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頸聯은 풍악소리와 벽제소리의 조화로움 속에서 황제가 조회를 마치고 퇴조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황제를 袞袍에 비유하여 붉은색의 아름다움과 강렬함을 임금의 권위적인 모습을 연상 시키며, 그 만큼 湖陰이 중화세계의 위대함을 동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尾聯부분의 緇黃은 승려와 도사를 나타내는 말로써 신하들을 비유했고, 비녀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궁녀를 나타내면서 조회가 끝나고 단계적으로 물러나는 광경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청각과 시각적 심상이 어우러져 화려하고 장중한 館閣詩의 특징

37) 『湖陰雜稿』, 「朝天錄」, <朝謁>

을 살려내고 있는 듯하다.

<臘月廿一夜夢得句云 紅雲尙覆文華殿 淸蹕初回左順門 意若朝天之作 戲足成之 >  
銅壺水咽漏籌繁      구리병에서 흐르는 물줄기 세는 것 번거롭더니  
闕角疏星繞紫垣      꺾각의 큰 별이 천자궁을 둘러싸고 있네.  
入仗微風旗脚偃      행렬에 들어가니 가는 바람이 기각을 쓰러뜨리며  
趁班殘月佩聲喧      잔월 반월에 나가니 쇠잔한 달이 지는 소리 떠들썩하네.  
紅雲尙覆文華殿      붉은 구름은 오히려 문화전을 덮었고  
淸蹕初回左順門      맑은 임금의 행차 처음으로 좌순문을 도네  
更識皇居住氣象      다시 황제 사시는 곳에 아름다운 기상을 알 수 있는데  
萬年枝上射朝暉<sup>38)</sup>      만년 가지위에 아침햇빛이 쏘네

이 시는 宜春日錄에 수록되어 있다. 宜春日錄의 詩들은 전반적으로 울적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이 정치 현실의 은유로 나타나서 점차 성숙되어 감각적으로 세련되어진다.

위의 시에서 臘月 二十一日 밤 꿈에 “紅雲尙覆文華殿 淸蹕初回左順門”의 구절을 얻어 중국 천자한테 조회 가서 짓는 듯 재미삼아 지은 詩이다.

이 詩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화려한 궁궐의 모습을 웅결차고 기이한 문구를 사용하여 표현하면서 그와 대조되는 자신은 疏星, 微風, 殘月 등의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나약한 작자 자신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

하지만 尾聯에서는 마냥 자신의 힘없는 모습을 한탄하기 보다는 곧 궁궐을 향한 천자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새로운 힘을 느끼며 서광 및 아름다운 기상으로 마무리함을 볼 수 있다.

湖陰의 문학적 특징인 奇字의 활용 면에서 특히 助字의 사용을 주력으로 하여 이 시의 품격을 한층 높이려고 애쓴 흔적을 엿 볼 수 있다.

< 次雲岡快哉亭韻 >

俯瞰魚鱗萬屋頭      높은 집 꼭대기에서 물고기를 내려다보고  
層霄嘯傲擬天遊      층층 구름 속에서 휘파람 부니 하늘에서 노는 듯 하네.  
陶雲掩苒橫拖岫      구름은 달려서 풀이 우거진 산을 가로질러 넘어가고  
謝練微茫曲抱丘      비단 같은 물결은 아스라이 언덕을 굽어 안았네

38) 『湖陰雜稿』, 「宜春日錄」, <臘月二十一日 一夜夢得句云. 紅雲尙覆文華殿. 淸蹕初回左順門. 意若朝天之作. 歲足成之>

荷蓋媚晴鋪鏡面      연꽃잎은 아름답게 거울 같은 수면을 덮고 있고  
 槐陰分綠入簾鉤      왜나무 녹음은 그늘을 나누니, 주렴 안으로 드는구나.  
 亭顏得快遮樓堞      정자의 앞이 시원하게도 누각의 담을 막으니  
 不放吟眸眺遠洲<sup>39)</sup>시인의 눈동자 먼 곳의 물가를 바라보도록 놓아두지 않는 구나

이 詩는 『湖陰雜稿 권2』 「龍灣日錄」에 수록되어 있는 <次雲岡快哉亭韻>이라는 제목의 詩作品이다. 호음은 1537년(중종32년)에 원접사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중국사신을 接伴하면서 그들과 수창 한 詩로 鄭士龍의 詞章 실력이 높이 평가 되고 있다.

이 詩는 공용경과 부사 오히멍을 반송하면서 공용경의 쾌재정시에 차운한 시로, 快哉亭에서 바라보는 시원스런 여름 경치와 호탕한 의기를 노래한 시이다.

首聯은 연못에 있는 물고기의 모습을 '魚鱗'이라는 시어를 사용하여 물고기 비늘까지 보이는 것처럼 묘사하여 물의 맑음을 표현하였고, 신선이 된 것처럼 하늘에서 노니는 밝은 심상을 전개하였다. 頷聯에서는 '菴'을 사용하여 주변 경관이 숲으로 우거짐을 드러내면서 계절적으로 여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못에서 비치는 구름의 모습이 마치 언덕을 은근히 감싸고 있다하여 자연경물의 아름다움을 상상하게 하는 구절인 것 같다.

頸聯과 尾聯의 분위기는 왜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주니, 정자에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首聯과 頷聯에서 보여주는 시각적인 심상보다는 촉각의 심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마지막 구절에서 물가만 바라봐도 좋은데, 다른 주변경관까지 매혹적이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심취한 湖陰의 정서를 알 수 있다.

이 시에서도 湖陰 詩의 특징인 단순한 시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이하고 험박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館閣詩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夢尙書夏公 >

皇家人物衣冠藪      황가의 인물이 벼슬아치의 연수인데  
 一角祥麟冠四靈      일각수 기린이 네 영물 중 으뜸이라네.  
 羲獻筆鋒推獨到      왕희지, 왕헌지 부자 같은 필봉으로 독보적 경지에 이르렀고  
 班揚賦手擅高名      반고와 양웅 같은 글 솜씨로 높은 이름 드날렸네

39) 『湖陰雜稿』, 「龍灣日錄」, <次雲岡快哉亭韻>

南曹庀禮歸時論 南曹의 예 다스림은 시론을 따름이니  
 宮保承恩切極星 宮保에 承恩을 받은 것은 북극성에 간절하였네.  
 黃鶴壤蟲知自別 누런 고니와 땅의 벌레가 절로 다름을 알겠거니  
 魂交猶得覩分明<sup>40)</sup> 꿈속에서 만났어도 오히려 또렷이 볼 수 있었네.

<夢尙書夏公>이라는 제목의 이 詩는 오히매이 북경에서 돌아오는 도중 꿈에 尙書 夏公을 만나보고 쓴 鄭士龍의 詩를 보기 위해 鄭士龍에게 편지를 보내어 朝天日錄이 간행되었거든 보내주기 바란다 하였다<sup>41)</sup> 고 전해지고 있다.

이 詩의 내용을 살펴보면, 湖陰이 中國에서 만났던 禮部尙書 夏公을 稱頌하는 시로 使行의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외교 문학의 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首聯에서는 夏公의 인물됨을 최고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으며, 그리고 頷聯과 頸聯은 首聯에서 夏公의 인물됨을 찬양했다면, 夏公의 筆鋒 실력과 글을 짓는 솜씨를 중국의 역대 훌륭한 인물에 비유하여 화려하게 찬양하며 존경심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구절이다.

頸聯에서는 夏公의 나라 中國 皇帝에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며, 尾聯부분은 夏公을 黃鶴에 湖陰 自身은 벌레에 비유해서 상대방을 추켜세움으로 湖陰의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하지만 使臣으로서 使行과 接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를 통해서 湖陰 鄭士龍은 중화세계를 지극히 동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次入漢城喜晴 正使韻 >

① 大慶布鸞書 큰 경사를 알리는 조서를 반포하시니  
 德音均海宇 덕음이 해내에 고루 퍼지도다  
 重陰鎖連朝 두터운 구름 연일 아침해를 가리고  
 積潤滋入土 장맛비가 불어나서 땅에 스며드니  
 泥沾恐失容 진흙길에 위용을 잃을까 염려하며  
 默禱罄不覩 묵묵히 기도하며 엿드린 채 보지 않았네

40) 『湖陰雜稿』, 「朝天錄」. <夢尙書夏公>

41) 『稗官雜記 4』, 국역대동야승 一卷, 536면 참조.

皇威豈違顏	황가의 위엄이 어찌 면목을 무너뜨리리?
齋沐肅龍虎	목욕재계하니 용호 깃발이 엄숙하구나.
剝雲挾天風	구름을 뚫고 하늘에 바람이 불어
吹斷簷間雨	치마 사이비를 불어 끊으니
不勞占女牛	견우직녀성에 점칠 것도 없어
曠蕩曬陽煦	활짝 개여 햇살이 쬐이는구나.

② 離輝繼明遍八方      빛나는 깃발이 새벽에 사방에서 두루 들어오니  
 帝言郁穆敷吾王      황제의 돈독한 말씀 우리 왕에게 펼쳐지겠네  
 將命詞臣儼若仙      명을 받든 사신은 풍채가 당당한 신선 같아서  
 襟靈淵奧難窺牆      가슴은 넓고 심오하여 그 경지 넘보기 어렵네.  
 慕天何敢僭揄揚      하늘을 본뜬다고 어찌 감히 주제님께 오르랴?  
 還有短什<sup>42)</sup>歌皇<sup>43)</sup>      도리어 짧은 시로 허둥지둥 노래 부를 뿐이네.

湖陰 鄭士龍은 여러 차례 걸쳐 中國使臣을 接伴하여 唱酬한 詩篇들을 별도로 엮어 호음잡고 券六<皇華和稿>를 남겼는데, 이 詩稿에는 종사관으로 酬唱했던 詩로부터 詩作하여 반송사, 원접사로 중국사신들과 수창한 시들이 차례로 실려 있다.

이 詩는 공용경의 詩에 次韻했으며, 中國使臣의 일행들이 한성으로 입성하는 정경을 館閣詩의 한 유형인 宮詞의 형식을 추구하여 완결된 미적구조를 이룬 것이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인다.

①의 五言律詩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使臣一行들이 한성에 入城하고자 하는데, 며칠 동안 구름이 끼서 비가 내려 날이 개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작자의 마음을 묘사했고, 다행히도 비가 그치고 해가 떠서 작자가 염려했던 일이 생기지 않은 湖陰의 밝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첫구에서 '德音'이라는 표현은 천자의 '德音'으로 여겨 작자가 마치 중국에서 황제를 대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 중화세계를 동경하고 있음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②의 七言詩 첫 번째 구절에서는 '明'이라는 밝음의 의미를 새벽이라는 시

42) 什, " 詩歌 또는 詩篇 詩經의 雅와 頌의 각 10편을 '什' 이라 한 데서 전용된 뜻."

43) 『湖陰雜稿』, 「皇華和稿」, <次入漢城喜晴 正使韻>

간접 의미로 해석하면서 깃발을 들고 행차하는 사신의 행렬을 경쾌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황제와 동반하지 않았지만, 원만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두 번째 구절에서는 조서를 반포하러온 사신들마저도 신선의 영적인 존재임을 부각시켜 대단한 위력을 가졌음을 나타낸 흔적이 드러나 있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사신 행차의 영광스러움을 짧은 詩로 표현 할 수밖에 없는 작자의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결론적으로 이 詩의 분위기는 사신들의 지위를 과장되게 표현했고, 사신행차의 광경을 야단법석스럽게 나타내고 있다.

湖陰 鄭士龍은 館閣詩를 통해서 文臣으로써 讚美志士<sup>44)</sup>를 담아 華美하고 艷麗한 詩를 創作함으로써 자신의 외교 정치적 기능을 발휘하고자 했던 것이다.

< 次宴勤政殿 正使韻 >

- |                      |                        |
|----------------------|------------------------|
| ① 紫殿臨雙闕              | 붉은 전각이 대궐에 임했는데        |
| 游氛捲九霄                | 깃발의 기운 하늘 끝까지 치솟네.     |
| 雨添花臉膩                | 비에 젖은 꽃잎은 반지르르하고       |
| 風擲柳腰嬌                |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는 교태롭네    |
| 肅享陳籩豆                | 엄숙한 제사를 지내듯 제기예 음식 베풀고 |
| 攄金間鼓簫                | 금간의 북과 통소를 치네.         |
| 襟期披更豁                | 옷깃을 풀어 헤치니 더욱 시원하니     |
| 眉宇鄙全消                | 좁은 미간이 온전히 퍼지네.        |
| ② 桃熟供王母              | 벽도화가 무르익었으니 서왕모에게 바치고  |
| 鳧飛逐葉喬                | 오리가 날아오니 섭교를 맞이하겠네.    |
| 碧雲聲駐曲                | 벽운성이 난간굽이에 머무르고        |
| 丹渥暈吹潮                | 붉은 불빛은 호수에 부네.         |
| 翦蠟猶揚觶                | 초 심지를 자르며 여전히 술잔을 올리는데 |
| 鳴鼉始戒宵                | 악어가 우니 비로소 밤을 알리네.     |
| 角弓嘉樹傳                | 아름다운 나무 사이로 각궁이 전해지니   |
| 規範不相遙 <sup>45)</sup> | 규범이 서로 멀지 않다네.         |

44) 김성언, 「한국관각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45) 『湖陰雜稿』, 「皇華和稿」, <次宴勤政殿 正使韻>

이 시는 五言律詩의 形式을 지녔으며, 勤政殿에서 열린 宴會에서 正使의 韻에 次韻한 詩로 사신을 접대하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체적으로 詩를 크게 二부분으로 나누어서 詩의 내용을 밝히 고자 한다.

①의 首聯부분은 사신들이 대궐에 입성하여 연회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절 정에 다다름을 알 수 있고, 頷聯에서는 비와 바람이 부는 것을 아름답게 묘 사하고 있다. 頸聯에서는 연회를 베풀고 있음을 마치 제사를 지내듯이 음식 을 제기에 차린 것은 사신들을 공경하고 나아가 중국의 황제를 공경하고 있 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의 시는 벽도화와 서왕모라는 典故를 사용하여 연회에 참석한 사신들과 신하들이 마치 신선의 존재임을 부각시켜 위대함을 과시하고 있다.

시간상으로 한밤중이지만, 연회는 끝나지 않고 더욱더 그 열기가 대단함을 알 수 있다.

이 詩를 통해 湖陰의 접반 업무는 사신들의 접대를 함에 있어서 마치 황제 를 대하 듯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

이상으로 湖陰 鄭士龍의 사행과 접반업무 중심에서 사신과의 酬唱이나 宴會 등에서 이루어진 공적 詩世界를 살펴본 결과 중국의 황제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사신들을 성심 성의껏 接伴함과 동시에 황제를 恭敬 하고 나아가 중화세계로의 진출을 간절히 바라면서 동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관직에 대한 염증 표출

湖陰 鄭士龍은 관직 생활을 대부분을 사행과 접반 업무로 소요하였다. 그 는 중국 사신과 더불어 질탕한 연회와 명소 유람을 즐기며 화려한 색채의 詩를 쓰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접반의 화려함 뒤에 수반되는 병고와 시 름, 자조와 회한을 호소하는 시들도 적지 않다. 이는 반복적인 일상에 대한 염증이기도 하면서 대부분을 타향살이를 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필연적으 로 뒤따르는 향수 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 連山逆旅 >

連山把截<sup>46)</sup>雨連山<sup>47)</sup> 연산 요새에 내리는 비는 산까지 이어져 있고  
 萬斛羈愁不可刪 만섬의 나그네 시름을 깎을 수가 없구나  
 馬齧枯筭和夢聽 마른 콩깍지 씹는 말소리는 꿈결에 들리고  
 鼠偷殘粟背燈看<sup>48)</sup> 흠어진 알곡을 훔치는 쥐가 등불 뒤로 보이네  
 衰年許國從身遠 노쇠한 나이로 나라 위해 이 몸 멀리 왔건만  
 暮歲思鄉益鬢斑 해가 저물어서 고향 생각하니 귀밑머리 더욱 세는구나  
 古戍荒榛懷董語 옛날의 개암나무는 황폐해져 동어를 품으며 지키는데.  
 古人離別亦曾艱<sup>49)</sup> 오랜 친구와 이별하니 또한 더욱 힘들구나.

이 詩는 冬至使의 임무를 수행하며 북경으로 가는 도중에 쓴 시로 경물과 그에 촉발되는 감흥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首聯에서는 連山이라는 '죽 이어져 있는 산'의 뜻으로 북경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난하여 힘든 여정임을 묘사하고 있다. 연산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미를 확장시킬 뿐 아니라 리듬감을 살리는 효과도 가져온다. 게다가 비 까지 내리고 있어서 湖陰의 시름을 털어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把截은 나그네의 시름을 형용하는 말이기도 하다.

頷聯은 여관에 머물며 잠을 청하려고 하지만 말이 여물을 씹는 소리, 쥐가 등잔 뒤로 곡식 낱알을 훔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쉽게 잠이 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관에서의 낯설고 어설픈 심사를 청각적·시각적 대상을 재치 있게 묘사함으로써 나그네의 시름이 더욱 절실하게 대변되고 있다.

여기서 호음 시의 특징인 경물을 요란하게 묘사하면서 역대의 전대 시인의 佳句<sup>50)</sup>에서 點化하여 좋은 표현을 재창출 하는 데 뛰어난 솜씨를 보이고 있

46) 李鍾默, 『海東江西詩派 研究』, 태학사, 1995. 152면 참조  
 把截, 關門의 작은 짐이라는 뜻으로 剪燈詩話에 나오는 말이다.

47) 李鍾默, 『海東江西詩派 研究』, 태학사, 1995. pp.152 ~ 153.  
 連山, "궁벽한 데서 典故를 구한 것이면서 고유명사로 連山을 한번 쓰고 비가 이어져 내린다는 뜻으로 다시 한번 連山이라는 시어를 쓴 것도 기이하면서도 비속한 鄭士龍의 취향을 드러낸 것이다."

48) " 馬齧枯筭和夢聽 鼠偷殘粟背燈看 " 이 구절은 홍만종의 소화시평에서 歷代 시인의 警句 중 奇妙한 시구로 예를 들어놓았다.

49) 『湖陰雜稿』, 「朝天錄」, <連山逆旅>

50) 李鍾默, 『海東江西詩派 研究』, 태학사, 1995. pp.147~148.  
 "전대 시인의 시구를 가져오되, 의미나 구법을 변용한 예이다. 上句는 黃庭堅의 기괴한 시풍의 예로 흔히 소개되는<六月十七日晝寢>" 馬齧枯筭和夢聽 夢成風雨浪翻江"에서 點化하였다. 鄭士龍은 黃庭堅시의 기이함을 더욱 강화하여 下句에도 더욱 기이한 내용을 담았다. 下句에서 동물과 식물인 쥐와 곡식

다.

頸聯과 尾聯에서는 늙은 나이로 使行을 가는 도중에 고향 생각에 심취한 정서를 표출하며, 자신의 처지를 초라한 개암나무에 비유하여 사행업무를 통한 고단한 시름을 드러내고 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 鄭士龍의 行歷과 대조적인 내면을 잘 드러낸 詩이다.

< 信宿東關 >

黃梁再熟滯孤城	기장쌀이 다시 익을 만한 사이에 외로운 성에 머무니
彈鋏無人識我名	칼자루를 두드려도 나의 이름 알아주는 이가 없네
未有詩篇充橐實	자루를 가득 채우는 시편도 있지 않은데
還多愁緒觸心兵	도리어 수심은 가다가다 많아 심사를 건드리네
半簾纖月欺燈影	처마에는 가는 달이 걸려 등잔불 그림자를 속이고
五夜流風遞漏聲	오경에 부는 바람결에 물시계소리 번갈아 들려오네
胸次百年元磊塊	백년인생에 가슴속은 원래 돌덩이처럼 답답하여
邇來無酒轉難平 <sup>51)</sup>	요즈음 술이 없으면 더욱 마음 가라앉히기 어렵구나

<信宿東關>은 朝天錄에 紀錄되어 있으며, 이 詩는 東關이라는 곳에서 이틀 밤 동안 투숙하며 쓴 것이다.

사행과 접반의 업무를 통해서 겪게 되는 고초와 시름에 관한 것을 자조적으로 읊은 것이다.

首聯은 孤城이라는 공간적 이미지를 통해 작자의 외로움을 나타내고 있고, 자신의 시름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현실의 답답함을 표현하고자 했다.

頷聯에서는 작자가 시름을 달래기 위해 시를 쓰고자 하지만 오히려 愁心만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頸聯에서는 달빛이 비쳐서 등잔불에 생기는 그림자를 덮고 있다는 표현으로 마치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위로 받고자 하는 심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했고, 밤 동안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尾聯은 전체적인 詩의 흐름에서 침통한 분위기로 마감하고 있으며, 무거운 돌덩이 같은 마음을 술이 없으면 해소가 되지 않을 만큼의 고단함을 드러내

을 넣어 정치한 對偶를 구사하면서 등잔불에 비치는 쥐의 모습을 담았다. 황정건의 작품이 낮잠을 잘 때의 풍경을 그렸다면, 정사룡은 밤에 잠을 자면서 눈에 보이는 경물을 기괴하게 그려낸 것이다.”

51) 『湖陰雜稿』, 「朝天錄」, <信宿東關>

고 있다.

이 詩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작자의 화려한 사행업무 뒤에 가려진 자조와 悔恨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 寒食書懷 >

清明佳節暮春前	청명이라 좋은 명절, 저문 봄날에
向晚輕寒透薄絨	저녁 되자 가벼운 한기 얇은 솜옷을 뚫네.
塞邑無村炊禁火	변방이라 불을 금하는 마을도 없건만
邨山有鬼紙飛錢 <sup>52)</sup>	북망산에는 귀신이 있어 지전을 날리는구나.
柔柔翳霧鳩鳴遠	여린 뽕잎은 안개에 가려 비둘기소리 멀어지고
高柳縑風絮度顛	높다란 버들은 바람에 흩날려 버들개지 지나감이 잦구나
坐逐鸞書成滯悶	편지 오기를 우두커니 기다리니 수심이 서려
松楸回首意茫然 <sup>53)</sup>	무덤으로 머리를 돌리니 마음이 망연해지네.

湖陰이 1537년경 중국사신 공운강(龔雲岡), 오용률(吳龍律)등을 반송할 때 지은 것으로 龍灣日錄에 수록되어 있다. 이 詩는 한식날 접반의 업무로 객지에 나와서 읊은 것이다.

首聯에서는 한식이 4월경에 지내는 제사라서 계절상 따뜻하지만, 湖陰은 마음속에서 약간의 寒氣를 느낀다하여 쓸쓸함을 묘사하고 있다. 頷聯은 '寒食'이라는 명칭을 직접 말하지 않고 풍속 자체를 말하였다는 점에서 시의 깊이를 더한 요소가 된다. 변방 마을에서 맞는 쓸쓸한 한식은 자연스럽게 고향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조상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특히 작자는 下句에서 인생의 자조와 회한에 빠져들게 된다.

頸聯구에서 안개가 부드러운 뽕나무를 가리니 이 때문에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멀게 여겨지고. 바람이 높은 버들을 불어서 버들개지가 자주 날린다는 뜻으로, 여기서 '翳', '絮'는 단련이 심한 글자로 湖陰의 海東江西詩派적 詩의 특징을 잘 드러낸 구절이다.

특히 頸聯구는 봄날의 평범한 풍경이지만 호음 자신의 답답하고 쓸쓸한 심사를 투영하여 재치 있는 縑風이라는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助語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國祖詩刪 에서는 "잘 다듬어져 묘한 맛이 있다"고 평

52) "塞邑無村炊禁火 邨山有鬼紙飛錢" / 杜甫의 <一百五日夜對月> "無家對寒食, 有淚如金波"의 구법을 차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53) 『湖陰雜稿』, 「龍灣日錄」, <寒食書懷>

한다.

尾聯에서는 고향에서 가족들의 편지가 오지 않아 기다리기만 하는 자신의 답답한 처지와 한식인데도 성묘하지 못 하는 한스러운 마음을 절실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을씨년스러운 무덤을 바라보는 사룡의 모습에서 접반 업무 이면의 고단함과 고생스러움을 잘 드러내고 있다.

< 劔水館, 步唐太史韻 >

連歲何曾息動輶	두 해를 연이어 언제 수레를 멈춘 적이 있으랴?
委身王事不辭遙	왕사에 몸을 맡겨 먼 길도 마다 않고 왔네.
秋風彈鋏燕山邸	연산 숙소에서 가을바람에 칼자루를 두드리고
春雨沾衣灑水橋	패수의 다리에서 봄비에 옷을 적시는 구나.
覽鏡未嫌名已晚	거울을 보노라니 이름이 이미 늦은 것도 꺼리지 않고
跨鞍贏得髒全消	말 안장에 걸터 앉았는데, 허벅지 살이 다 빠지는 구나.
江南叢桂頻招隱	강남의 계수나무떨기가 자주 은거하라 부르니
何日投章謝聖朝 <sup>54)</sup>	어느 날에나 사직서 올리고 성조를 작별할까?

이 詩는 1545년 겨울에서 그 다음해 봄까지 재차 내방한 공용경을 接伴하고 그 다음 함께 북경으로 使行가면서 次韻한 것이다.

首聯에서는 작자는 외교적 업무인 사행과 접반에 충실하려고 했지만, 간접적으로 고단함을 '수레를 멈추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묘사하였다.

頷聯은 업무의 임무를 띠고서 나온 자신의 처지를 담담하게 말하며, 이러한 고행에서 벗어나고픈 심정을 은연중에 호소하고 있다.

頸聯에서는 말을 타고 먼 길을 떠나야하기에 그 동안 걷지 못해서 자신의 다리가 허약해져서 병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尾聯에서는 병고와 시름이 극도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사직서를 내고 관직에서 물러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詩의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은 호사스러운 자신의 행력보다는 객지에서 病과 시름 속에 보낸 것을 한탄하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戲集古句奉調安分先生 >

愁對寒雲雪滿山      근심스레 찬 구름을 마주하니 가득 산에 눈이 내려

54) 『湖陰雜稿』, 「儂接日錄」, <劔水館, 步唐太史韻>

故園東望路漫漫      동으로 고향 동산을 바라보니 길은 아득히 멀구나  
平生文字爲吾累      평생 문자가 내 인생의 누가 되었으니  
長擬求閑未得閑<sup>55)</sup>      늘 한가함을 구하려 하니 얻을 수 없구나

이 詩는 湖陰雜稿 <新安日錄>에 수록된 것이다. 1537년(46세)경 지금의 평북정주에서 중국의 사신을 기다리며 창수하거나 개인적으로 지은 시가 주를 이루며 계속되는 접반 업무로 인한 피로와 귀거래의 소망을 읊으며, 외교 시인으로서의 궁지와 宦路에 매인 처지에 대한 환멸이 드러나 있다.

起구는 눈앞에 펼쳐진 寒雲을 통해 작가의 쓸쓸한 마음을 드러내려하고, 계절상 겨울을 나타내는 눈이 내려 산에 쌓인 모습을 통해 자신의 처연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承구에서는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고 아득해서 고향에 대한 향수가 깊게 베어 묻어난다.

轉·承구는 文字가 平生에 오히려 누가 되어 고향 동산을 멀리 떠나 使行으로써 길을 떠난 것에 대한 후회가 드러나고 있으며, 사행과 접반 업무 화려한 명성 그 이면에 가려진 伴接의 고초와 시름을 나타내고 있다.

< 釋悶有寄 > 제2수

壯志爲官屈      굳은 뜻은 관직 때문에 꺾이고  
殘軀與病謀      쇠잔한 몸은 병과 더불어 도모하네.  
幾將千古事      어찌하여 천고의 일로  
供作一般愁      한결같은 근심으로 만들 수 있으랴  
小酌無人共      한 잔 술 같이 할 이 없어서  
長謠只自酬      긴 노래 나 홀로 주고받네.  
定知無柰歎      정녕 탄식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겠거니  
空復入搔頭<sup>56)</sup>      부질없이 다시 들어가 머리를 긁어보네.

1519년 乙卯土禍가 발생한 시기로 위의 詩는 玉堂錄에 기재되어있다. 湖陰鄭士龍은 1519년부터 1520년까지 直提學으로 근무하던 시기이며 또한 容齋李荇이 大提學에 머무를 당시에 함께 접반하면서 지은 것이다. 하지만 접반 경험은 詩로 남아있지 않아서 안타까운 실정이다.

55) 『湖陰雜稿』, 「新安日錄」, <戲集古句奉調安分先生>

56) 『湖陰雜稿』, 「玉堂錄」, <釋悶有寄 제2수>

首聯에서는 작가가 관직 생활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호음의 장한 뜻이 관직의 번거로움과 구차함에 의해 꺾였다고 느끼고 있다. 下句의 殘과 病이라는 詩語를 통해서 접반업무를 통한 병고와 시름에 시달리고 있음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頷聯에서는 자신의 病苦로 인해 접반업무 수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음을 근심스러워하고 있다.

頸聯에서는 술을 같이 먹어 줄 누군가 없어서 관직생활의 답답함과 외로움을 詩를 읊으며 해소하려는 호음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尾聯부분은 관료로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행과 접반업무를 충실히 하고자 다짐하는 약간의 기색이 드러나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젊은 나이에 걸맞지 않은 수심과 자탄을 내보이는 점으로 보아 사행과 접반업무로 인한 피로가 쌓인 것 것처럼 느껴진다.

이상으로 接伴시에는 호화로운 대접과 연회가 따랐을 것이지만, 湖陰은 호사스러운 접반과 관직생활의 명정보다는 객지에서 많은 나날을 보내며 病苦와 시름의 고초로 인해서, 그의 詩에서 알 수 있듯이 자조와 회환이 강하게 표출되어져 있다. 또한 湖陰은 館閣文人으로 자신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고 애쓴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며, 한편으로 불안한 仕宦生活로 인해서 병고와 시름을 겪은 고초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湖陰의 정치생활의 示唆적인 면모 보다는 작가론적인 성격에 맞추어 가면서 화려한 관각의 활동 그 이면에 놓인 불안한 내면세계를 재조명해 보았다.

## 2. 閑居期の 詩

湖陰은 일생 동안 수차례의 파직을 당하면서 자의던 타의던 간에 관직에 있는 시간에 준하는 많은 시간을 정계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 시기에 지어진 호음의 작품은 官僚期の 그것과는 사뭇 다른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자연에의 귀의한 후의 湖陰이 田園生活을 향유하면서 지은 詩作品들과 그가 山水를 遊覽하면서 지은 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湖陰의 閑居期の 생활 모습 및 심리 양상 등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歸去來를 통한 자연에의 귀의

문인들 사이에서의 歸去來의 표방은 그 연원이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일반화된 정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歸去來 의식의 생성 동기나 그 유형이 항상 동일하게 전개되었던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귀거래의 양상은, 마음은 작록을 사모하면서도 겉으로는 고상한 이름을 얻으려는 도명의식에서 비롯된 경우·현실을 부정하고 무위를 의지화, 방일을 행동화하는 망세 의식에서 비롯된 경우·도의 실현이 요원한 현실에서 은거함으로 經國濟民의 뜻을 구하거나 明哲保身을 도모하는 儒家全形의 獨善에서 비롯된 경우·자연에 영원한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人間本然 回歸意識에서 비롯된 경우 등으로 유형화해서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유형이든 사대부로서 歸去來에 강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현실 체험의 좌절감으로 인한 반작용으로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 정치·경제적으로 불안했던 15-16세기에 귀거래의 풍조가 만연했던 요인 중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官僚文人들이 歸去來를 염원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公明 世上을 살면서 오는 심리적 피로감과 좌절감, 인생 본질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인생의 허무감과 애상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生涯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湖陰은 음탕한 생활과 잘못된 처신으로 비방과 여러 차례 탄핵<sup>57)</sup>을 받으며 순탄치 못한 벼슬살이를 했다. 파직되고 복직하는 반복적인 상황 속에서 湖陰은 적지 않은 물리적 시간을 귀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는 자연에 의지하면서 현실세계를 벗어나려는 내면의식이 표출된 詩作品을 적지 않게 남기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詩 作品들을 통해서 작자가 갈망하는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통찰하고자 한다.

57) 『朝鮮王朝實錄』 <중종실록 1518년> 彈劾을 받아 체직 되었으나 1519년 乙卯土禍가 일어나자 다시 直提學에 임명되었다.

1521년 / 父親喪을 당하고도 護軍으로 서울에 있으면서 음행을 저질러 탄핵을 받아 이후 3년 동안 宜寧으로 내려가서 다시 洪州 牧使에 임명되었다.

1537년~1542년 / 接賓使로 일하다가 宜寧에 칩거, 여러 차례 탄핵에도 불구하고 禮曹判書에 오름. <인종실록 1545년> 을묘사화 후에 禮曹判書에 올랐지만 뇌물수수로 체직.

<명종실록>, 1546년/ 1558년 李樛과 愼思獻을 부정 선발한 혐의로 파직.

본격적인 閑居期 작품들을 논의하기에 앞서, 관직기에 있으면서 閑居 生活을 꿈꾸었던 詩作品 몇 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의 歸去來에 대한 갈망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 得家書 憂不能寐 >

點滴緣簷溜	방울방울 비치는 처마에 떨어지고
淒涼逗幔風	처량하게 장막에 바람만 부네
還家宵有夢	집에 돌아와서는 밤바다 꿈에 보이고
破恨酒無功	한을 삭히려 술 마셔도 효험이 없네
生理從來薄	돈 벌이는 본래 서툰고
身謀此去窮	처세도 점점 궁해졌으리
何因拋世累	어찌하면 세상의 번거로움을 벗어나
永伴狎鷗翁 <sup>58)</sup>	같이 갈매기와 벗하는 사람이 될까네

湖陰은 자신의 잘못된 행실과 처세 문제로 비방과 비난을 많이 받았다. 이 詩는 당시로 치명적인 사건에 관련<sup>59)</sup>되고 권력가들과의 교섭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하지 못했던 시기에 지어진 것이다.

首聯에서는 작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갈등을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처량한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頷聯에서는 자신의 허물을 밤마다 꿈속에서조차 해소하고자 했고, 限을 삭히려고 술을 마셔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頸聯은 관직생활에서 자신의 위치가 점점 좁아지며 어울리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그리하여 尾聯에서 작자가 느끼는 갈등이 고조 되어 세상의 번거로움을 벗어나서 갈매기와 벗하며 한적한 생활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詩를 통해서 湖陰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비난했고, 그러한 현실세계를 벗어나서 자연에 의지하려고 했던 흔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酬元友內相見寄之韻 > 제1수

官事塵勞一併催	관리의 번거로운 일들 한꺼번에 몰려오니
暮年丘壑夢中來	늙어 丘壑으로 돌아갈 일은 꿈속에 보이네

58) 『湖陰雜稿』, 「觀省錄」, <得家書 憂不能寐>

59) 徐守鏞, 「湖陰 鄭士龍 文學研究」, 계명 한문학 연구회, 1990.

書帷有暇只尋睡      서재에서 틈만 나면 졸고 있나니  
 懷抱何人遣好開<sup>60)</sup>    이 회포 누구와 풀어 볼 수 있으려나

이 詩는 湖陰의 이십대 전후로 乙卯土禍가 발생한 시기로 어수선했던 때이다. 趙光祖 一派가 숙청되고 정계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경직되었다<sup>61)</sup>아마도 이러한 사건의 계기로 歸去來의 대상을 자연으로 여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起구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놓여있는 작자의 위축되어져 버린 정서를 반영하고 있고. 承구에서는 丘壑이라는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속세를 벗어나고 자함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國祖詩刪에서 許筠은 '丘壑의 風流'라 評하기도 한다.

轉구는 서재에서 즐기고 있는 무료한 분위기 속에서 작자가 현실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結구에서는 작자의 답답함을 풀어 줄 누군가를 찾지만, 결국에는 늪에서 속세를 벗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함을 나타내고 있다.

< 寄昌齡使君 > 제1수

懶不尋詩課	나태해져 시는 짓지 아니하고
經旬但嘯歌	열흘이 지나도록 휘파람만 불고있네
晚山煙外媚	저문 산 노을 너머 아름답고
新漲席邊多	새로 물 불어 자리 옆까지 늘어났네
世味眞嘗蓼	세상의 맛 진실로 쓸쓸하였으니
勞生劇算沙	힘든 삶 모래를 헤아리는 듯 괴롭네
百年甘寂寞	평생토록 적막하게 지내도 괜찮으니
心事在漁蓑 <sup>62)</sup>	마음속의 일은 고기 잡고 도롱이 입는데 있네

이 詩는 宜春日錄에 수록된 것으로 1526년 (35세)에서 1528년 (37세)까지 약 3년간 경남 의령에 칩거할 때 지어진 시들로 구성되어있다.

首聯에서는 작자가 열흘 동안 시를 짓지 않고, 휘파람만 불면서 전원에서 한가로이 지내고 있는 생활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60) 『湖陰雜稿』, 「玉堂錄」, <酬元友內相見寄之韻>

61) 尹采根, 「鄭士龍의 詩의 研究 自然人識의 變貌樣相을 中心으로」, 高麗 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0

62) 『湖陰雜稿』, 「宜春日錄」, <寄昌齡使君>

頷聯에서는 해가 저물어 노을이 물들어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읊조리고 있다. 下句 에서는 마치 바로 옆에서 물이 불어난 것처럼 遠近의 기법을 사용하여 의미전달의 구체화를 느낄 수 있다.

頸聯은 世味, 算沙라는 시어를 통해서 정치생활의 고통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尾聯은 頸聯에서 느끼고 있는 정치생활의 고초와 시름을 생각해본다면 평생토록 적막하게 지내도 좋다 하여 자연에서 한적한 생활을 원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下句 에서는 漁蓑라는 시어를 사용하여 전반적인 詩의 흐름을 원만하게 집약하여 湖陰의 귀거래를 통한 자연에의 귀의를 표출하고 있다.

< 大浦收魚樛 示許彦寬 >

- ① 正坐朝廷記憶疏      조정에 바르게 앉아 있던 기억 희미해지니  
 二年江海混漁樵      강호에서 이년 동안 어부와 나무꾼 같았네  
 觀魚大浦非生客      대포에서 고기잡이 구경하니 낯선 손이 아니라  
 却媿村童盡識予      촌아이들 모두 날 알아보아 부끄럽네
  
- ② 林間候火認吾廬      숲 사이로 불을 맞이하니 내 집임을 알아  
 縱騫歸來覺體舒      절뚝거리며 돌아오니 몸 느긋해지네  
 駟馬高車憂畏大      사마와 높은 수레는 근심 커 두려우니  
 不慙貧賤老爲漁<sup>63)</sup>   빈천하고 늙어 어부 되는 것 부끄럽지 않도다

<大浦收魚樛 示許彦寬>이라는 제목의 7언 율시로 宜春日錄에 기재되어 있으며, 제1수와 제5수로 나누어 작자의 내면세계를 밝히고자 한다.

①의 구절에서는 江湖에 묻혀서 고기를 잡으며 한가로이 전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 때, 湖陰은 전원생활을 만족하지 못하고 관직생활의 미련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②의 구절에서는 ①에서 느끼는 작자의 마음과 반대로 읊고 있다.

駟馬高車인 관료생활로 지냈던 즐거움 보단 오히려 근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觀魚의 행사를 마치고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면서 비록 貧賤한 처

63) 『호음잡고』, 「宜春日錄」, <大浦收魚樛 示許彦寬>

지이지만 자연에 의지한 삶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 하고 있다.

두 수의 連作詩를 통해서 작자가 자연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를 알 수 있다. 결국 湖陰 鄭士龍은 정치생활에서 겪은 현실적 패배감과 외로움을 자연에 귀의하여 작자의 삶을 보다 평온함으로 치유하길 바라고 있던 것이다.

< 午夢 >

北牖尋殘夢	북쪽 창에 남은 꿈 찾으니
槐陰生嫩涼	槐나무 그늘에 으스스 서늘함 이네.
一蟬吟晝靜	매미 한 마리 낮에 울다 쉬고
雙燕哺雛忙	제비 한 쌍 새끼 먹이느라 바쁘네.
翰墨功雖退	한묵으로 세운 공 비록 물러났어도
田園趣漸長	전원의 뜻 점점 깊어지네.
向來膏火裏	이제까지 기름불 속에서
贏得鬢滄浪 <sup>64)</sup>	결국 얻은 것은 흰머리뿐이로다.

午夢이라는 詩는 北牖, 翰墨이라는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작자가 관각문인으로써 일정한 틀을 벗어나 자연에 의지하고자 함이 世情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풍류가 확연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首聯은 湖陰이 北牖을 朝廷이라고 비유하면서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지 못했음을 槐陰에 은유하여 무너짐을 표현했다.

頷聯에서는 매미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제비가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원적인 자연의 경물을 한가로이 읊조리고 있다.

頸聯은 頷聯에서 자연을 느끼는 감정이 고조되어 지난날 정치생활에 괴로웠음을 생각하고 있다. 자신의 문장이 나라에 보탬이 되어 부와명예를 얻었지만 벗어나서 전원에서 한가로운 정취를 느끼려는 강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翰墨, 과 田園을 적절한 對比로 사용함으로써 넉넉한 삶의 모습과 감흥이 유유자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연시의 멋을 깊이 있게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尾聯에서는 관직생활을 火裏라고 말하면서 鬢滄浪이 되었다고 하여 정치생활의 잔반적인 느낌을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표현하고 있다.

64) 『湖陰雜稿』, 「己丑雜錄」, <午夢>

湖陰은 自然詩에서 나타나는 경물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 戲自遣 >

種種霜毛與病俱	희끗희끗 흰 머리는 병과 더불어
名途那復染髭鬚	名途에 어찌 다시 수염 물들이랴
祗今廊廟多黃耆	지금의 조정엔 늙은이들 많으니
頭白何辭縮左符	머리 희다고 어찌 左符를 마다하겠는가
晚節功名有富民	만년의 공명 백성 부유케 하는데 있나니
未須料理二毛人	半白의 사람 써주길 바라지 않는다네
聖朝用少吾無用	聖朝는 젊은이를 등용하니 나는 쓸모 없구나
且向江湖好致身 <sup>65)</sup>	강호로 향하여 致身함이 좋으리라

이 詩는 의령 지방에서 지방군수를 동원하여 개인 제방을 쌓았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받고 다시 의령으로 행하며 느낀 자책감과 번민을 읊은 것이다. 작자는 고달픈 마음을 자연에 위로 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首聯과 頷聯에서는 지금의 朝廷은 늙은 관료들이 많아 작자가 地方官吏로 가는 것을 꺼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호음의 내면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地方官吏로 임명된 것을 반기지 않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過誤로 地方官吏로 떠날 수밖에 없는 심정을 합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頸聯과 尾聯에서는 公明意識과 江湖致身の 감정은 전체적인 詩의 흐름에서 공존하기에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尾聯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작자의 致身을 위해서 江湖에 의지하여 자연으로 歸去來를 원했던 것이다.

< 八月初吉 宿中隱堂 >

出郭蕭條討我曾	쓸쓸히 성곽을 나서서 봐둔 곳을 찾아가
斧斤初斷退堪憑	도끼질 막 끝내고 물러나 기대었네
已拋素蔓瓜區淨	시든 넝쿨을 치우니 오이밭은 깨끗해지고
欲割黃雲穡事登	구름 같은 누런 벼를 베면 타작거리 쌓이겠네
病葉受風疑曉雨	바람 맞은 나뭇잎소리 새벽비처럼 들리고
疏星垂野混漁燈	들판에 드리운 성긴 별은 고깃불과 어우러져 있네

65) 『湖陰雜稿』, 「己丑雜錄」, <戲自遣>

明年請老收朝迹      내년에는 여러 대신들 조회를 거두어 주리니  
 車馬敲門謝友朋<sup>66)</sup>      찾아오는 벗들이 문을 두드려도 사양하리라

이 詩는 雜記日錄에 수록되어 있으며 1553년(62세)에서 1563(72세)로 관직에서 물러나 노쇠함과 주위의 탄핵을 탄식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는 시들이 대부분이다.

首聯에서는 작자가 자신이 돌아다녀 본 곳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살아가는 詩想을 전개하고 있다. 上句의 討는 "찾다, 구하다"의 뜻으로 口語體적 표현이고, 我曾은 내가 일찍이 다녔던 행적을 이는 말이다. 下句의 斧斤은 도끼로 여기서는 나무를 베어내고 집을 짓는 뜻으로 전대의 시구를 點化하면서 독특한 구법 속에 기이하고 참신한 의경을 획득하였다고<sup>67)</sup>한다.

頷聯은 농부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편안하고 조출한 심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조시산>에서는 '琢句嚴重' 구름을 다듬은 것이 엄중하다고 평하고 있다.

頸聯의 上句에서는 관직생활을 벗어난 편안함을 '風疑曉雨' 로 자연경물에 투영시키며 묘사하고 있다. 下句에서는 疏星과 漁燈이 어우러져 빛나는 아름다운 새벽을 묘사하며 작자의 편안한 마음을 잘 표현해 내고 있다.

尾聯에서는 자연의 의지한 한가한 생활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朝廷에서 自身을 찾지도 말고, 友朋도 만나지 않겠다는 결의를 읊조리고 있다.

< 內集示兩兒 >

長繩那得絆斜暉	긴 줄로 어찌 기우는 햇살을 묶을 수 있으랴?
心賞無憑撫景違	마음으로 즐길 데 없어 햇살을 만지며 마음 상하네
高葉暗巢鶯獨語	높은 가지의 잎에 둥지가 가려져 피꼬리 소리만 들리고
殘花棲圃蝶雙飛	시들어가는 꽃이 남아 밭에는 벌 나비가 쌍쌍이 날아드네
兒孫滿眼承權諛	아이와 손자는 눈에 가득, 기뻐서 장난질 하고
歌吹驚隣絢舞衣	풍악패는 이웃을 놀라게 춤옷이 현란하네
但使百年身却健	다만 백년 인생 몸이나 건강하다면
東臯耕釣足忘機 <sup>68)</sup>	동쪽 언덕에 밭 갈고 고기 잡으며 사심 잊겠네

66) 『湖陰雜稿』, 「雜記日錄」, <八月初吉 宿中隱堂.>

67) 李鍾默, 『海東江西詩派 研究』, 태학사, 1995. 291면 참조.

68) 『湖陰雜稿』, 「雜記日錄」, <內集示兩兒>

이 詩는 湖陰의 60대 후반 詩作品으로 자연에 귀거래 하여 生을 마감하고 자 하는 염원을 간절히 읊고 있다.

首聯에서는 아름다운 저녁 햇살을 줄로 묶을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대신 손으로 쥘리며 해 지는 광경을 쓸쓸하게 표현하고 있다. 아마도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세월을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나타나고 있다.

頷聯은 봄날의 경치를 頸聯에서 심상을 전개하여 인생의 즐거움을 소박하게 읊조리고 있다. 작자가 집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아이들이 기뻐하고 이웃들이 놀라는 모습을 통해서, 湖陰은 歸去來의 삶을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尾聯에서는 여생을 '耕釣' 라는 시어를 통해서 세상의 욕심을 잊겠다고 말하고 있다.

< 晚眺有感 >

無堪世事聽嘈嘈	세상일 시끄럽게 들리는 것 감당 할 수 없나니
却向郊扉得息勞	시골집으로 향하여 피로움 그치게 했네
遠水依微林外見	먼 물은 어렴풋하게 숲 너머로 보이고
閑雲徧兀日邊高	한가로운 구름은 호방하게 해 주변에 높네
忘名自任人爭席	명에 있었음을 자임하는데 사람들 자리 다투니
效利誰教我拔毛	이익을 보려 누가 나로 하여금 털을 뽑게 하겠는가
一覽風煙通莽蒼	한번 돌아보니 風煙 푸르른 들판에 퍼져있고
每回詩膽覺增豪 <sup>69)</sup>	매번 詩心이 호방해짐을 깨닫네

이 詩에서 湖陰은 관직생활에서 얻은 부귀나 명예 같은 것은 부질없다고 여기며, 자연 앞에서 진정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있다.

首聯에서는 작자가 말년에 느끼는 정치생활은 감당하기 어렵고, 자신을 비난하고 탄핵을 일삼는 중앙집권정계에 강한 환멸을 느끼면서, 閑居生活을 통해서 피로움을 이기려 하고 있다.

頷聯은 水, 林, 雲 이라는 자연을 상징하는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작자의 자연의 의지 하려는 신념이 확고하게 표현되고 있다.

頸聯과 尾聯은 작자가 생각하는 자연의 의미를 정리하고 있다. 老年期 다룬 차분한 시상의 전개와 정련된 감수성으로 자신 만의 개성적인 시세계를

69) 『湖陰雜高』, 「雜記日錄」, <晚眺有感>

창조하고 있으며, 결국은 자연이 詩 創作의 훌륭한 소재이며 무대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 紀懷 >

四落階 蕙魄又盈	사방 계단에 명협초 네 번 지고 달이 다시 왔는데
悄無車馬閉柴荆	찾아오는 손님 없어 사립문이 고요하네
詩書舊業拋難起	글 읽는 오랜 업 던져두고 다시 하기 그만두나
場圃新功策未成	농사짓는 새 일은 하려 해도 되지 않는구나
雨氣壓霞山忽暝	雨氣가 노을을 가려 산이 문득 어두워졌는데
川華受月夜猶明	시냇물 달빛 받아 밤인데도 환하네
思量不復勞心事	다시는 마음 괴로운 일 생각하지 않으리니
身世端宜付釣耕 <sup>70)</sup>	이 몸 오직 밭 갈고 낚시질이나 해야지

이 詩는 湖陰이 70을 바라보는 老年에 創作된 것으로, 鄭士龍의 최고작으로 손꼽히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젊은 시절 까다롭고 江西詩派의 솜씨를 휘두를 때와는 다르게 이 詩에서는 난삽함이 거세지고 唐風까지 엿 보인다<sup>71)</sup>고 한다.

이 시기 작자는 자연 속에 한거하며 혼자 조용히 있으면서 회포를 적은 시들이 많은데, 노쇠함에 대한 탄식과 귀향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詩 評價로는 國朝詩刪<sup>72)</sup>에서 경련의 '雨氣壓霞山忽暝 川華受月夜猶明', '웅장한 글 귀, 빼어난 구절이 넓고 거침없이 쏟아져서 진실로 千年 만에 나올까 말까한 기이한 작품' 으로 神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首聯은 15일까지 하루에 15일이 하나씩 피다가 16일부터 그믐까지 15일이 하나씩 진다는 蕙莢을 등장시켜 녀 달 동안 시간의 경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15일이 피고 지는 동안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쓸쓸히 지내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下句의 悄라는 감탄사를 語頭에 사용함으로써 작자의 애달픈 정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頷聯에서는 평생 이룩한 詩業과 學文을 던져둔 채 다시 하기 싫다는 심상

70) 『湖陰雜稿』, 「雜記日錄」, <紀懷>

71) 민병수, 『韓國漢詩 代表作 評說』, 대학사, 2000

72) 『國朝詩刪』, " 雄詞傑句 滔滔莽莽 眞千載奇作 "

을 읊조리고 있지만, 작자가 詩書를 멈춘 것이 건강이나 가난 등에 의한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湖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그 당시에 작자의 겪은 마음은 詩作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출하고 있다.

下句에서 湖陰이 농사짓는 일에 전념하려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 오랜 관직 생활을 그만두고 전원으로 물러난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작자가 귀거래 후에 겪고 있는 정신적인 갈등은 심했던 것이다.

짜임새와 잘 다듬어진 頸聯은 비구름이 노을을 덮고 산도 어두워져 비가 내릴 듯 하지만 비는 오지 않고 도리어 밝은 달빛이 시냇물을 비치는 밝은 의미를 강조하여 雨氣와 川華의 절묘한 대구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심상으로 인해 작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의지하여 한적한 생활을 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尾聯에서 작자는 노쇠함으로 인해 지나왔던 자신의 관직생활에서 회환과 자조, 괴로움 뿐이었으니 생각하기도 싫다고 읊조리고 있다. 남은여생은 귀거래를 통하여 자연의 의지하여 釣耕의 생활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湖陰 鄭士龍의 歸居來를 통한 자연의 의지하는 詩들을 통해서,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로 자연에 은거하려 하면서도 관직생활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벗어버리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湖陰은 잦은 탄핵으로 인한 괴로움을 자연의 의지하여 치유 받고자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원생활을 통해서 자연의 정취와 한가로움을 느끼며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기기도 했다.

士林派들의 自然詩와는 다른 湖陰의 自然詩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움을 잘 살려내고, 詩唱作의 소재로 긍정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山水에의 遊覽

사대부들이 유명한 산, 명승지를 찾아 유람을 하는 것은 세속의 고난을 떨쳐버리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현실의지의 힘을 충전하는 것이었다. 山水遊覽을 즐기며 심성을 닦고 도를 즐기기도 하였고, 山水風景에서 일어나는 感興을 詩로 읊조리거나 文으로 남기는 것은 선비들의

기본 소양이었다. 선비들의 문집을 살펴보면 山水遊覽과 관련된 詩文이 없는 경우가 드문데, 그 이유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특히 金剛山은 빼어난 경치로 인하여 중국인들조차도 조선에 태어나 金剛山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였을 정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까지도 金剛山의 매력은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조선전기의 많은 文人들도 풍족한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金剛山 遊覽을 나섰는데 湖陰 鄭士龍 또한 금강산의 山水遊覽을 즐기며 山水風景에서 촉발되는 興趣를 詩로 읊거나 文으로 남겼다. 湖陰은 관직에서 물러나 의령에 은거하고 있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벼슬을 기다리던 1540년 10월, 關東 地方으로 遊覽을 떠나게 된다. 湖陰의 여정은 가평·춘천·양구를 거쳐 금화를 지나 통구로 입산하여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을 거쳐 양양·강릉을 지나 오대산을 유람한 뒤, 평창·원주·여주·광주를 거쳐 서울로 돌아왔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돌아와서 「關東日錄」이라는 紀行詩集을 저술하였는데, 여기에는 關東地方과 그 주변을 여행하면서 산수경치에 대한 感懷와, 旅程 중의 愁心, 人生無常을 노래한 詩들이 주로 수록되어 있다.

< 金剛臺鶴巢 >

胎仙閱世羽衣青	학은 세상의 일들 겪어 깃털 옷 푸르고
警露餐霞養性靈	이슬에 깨우치고 노을 먹으며 성령을 기른다
隱見隨時何足訝	때에 따라 숨었다 나타나니 어찌 의심할 만 하겠는가
應緣緇俗有昏醒 <sup>73)</sup>	불계와 세속에 따라 어리석음과 깨달음 있다.

이 詩는 작자가 鶴에 자신을 비유하여 감정이입 시킨 작품이다.

起·承句에서 胎仙이 鶴을 가리키는 말로 이슬과 노을을 통하여 聖靈을 기른다 함은, 湖陰이 자연 속에서 자신의 聖靈을 함양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轉句는 '隱見隨時'라 함은 때가 되면 속세로 나오고 아니면 숨어 지내는 隱者의 모습이 湖陰 자신인 것처럼 비유하고 있다. 작자는 자연 속에서 이러한 隱者의 모습을 꿈꾸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다.

結句에서 緇는 '검은 승복'의 의미로 불교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했다. 불계와 세속을 오가는 함축적인 의미는 湖陰이 여행을 하면서 느끼

73) 『湖陰雜稿』, 「關東日錄」, <金剛臺鶴巢>

게 된 인생무상을 읊조리고 있는 것이다.

< 立石 >

夸娥剖剗移楓岳      아름다운 여인을 새겨 풍악에 옮겨 놓았고  
雪蠹雲堆擲海中      눈 치솟고 구름 쌓여 바다에 던졌네  
龍虎騰拏人偶語      용과 호랑이 뛰며 잡으며 사람과 마주하니  
未應叢石擅奇功<sup>74)</sup>      총석정만이 기묘한 솜씨 독점하지 못하리라

해금강의 海萬物相에는 봉우리와 허리에 老松 몇 그루가 자라는 立石이 있는데, 이 詩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아 剖剗, 雪蠹, 雲堆, 擲, 龍虎, 騰拏의 시어를 사용하여 立石의 모습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詩의 원주<sup>75)</sup>에서 이번 행차에 길을 돌아오기에 총석정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물의 묘사가 뛰어난 詩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여정을 통한 작자의 내면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結句에서 叢石亭은 관동팔경 중에서 육각형의 돌기둥이 다발로 묶여 바다에 내려진 듯한 아름다운 곳으로 직접 방문하지 못하였지만, 立石이 아름답다고 소문난 총석정에는 뒤떨어질 것이 없다고 하여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詩에서는 단순히 여행을 통한 山水景致의 感懷만 드러나고 있다.

< 游楓嶽 >

萬二千峯領略歸      일만이 천 산봉우리를 날날이 보고 돌아오니  
紛紛黃葉落征衣      어지러이 누런 낙엽은 객의 옷에 떨어졌네  
正陽寒雨燒香夜      正陽寺에 가을비 속 향 피우며 밤 지내니  
蘧瑗方知四十非<sup>76)</sup>      거원처럼 사십 여년 잘 못산 것 알겠구나

74) 『湖陰雜稿』, 『關東日錄』, <立石>

75) 原註, " 此行 路迂 不見叢石亭 "

76) 『敬窩 先生文集』, 三卷, 詩 金剛山 김휴 <金焦 1597~1638 / 선조 30~인조16>  
조선 중기 학자. 자는 자미(子美)·겸가(謙可). 호는 한계정(寒溪亭)·경와(敬窩), 본관은 의성(義城). 명문(名門)에 태어났으나 당시 당파(黨派) 관계와 가정의 우환 등으로 과거응시를 포기하고 초야에서 학문에 힘을 기울이다가 43살로 죽었다. 저서로서는 《경와집(敬窩集)》 4책과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이 전하고 있다. 그 중 《해동문헌총록》은 조선시대의 문헌을 주제(主題)별로 전분야에 걸쳐 모아 해제(解題)한 방대한 저작이다.

이 詩는 湖陰文集에 실려 있지 않고 『大東詩選』, 『箕雅』에만 실려 있다. 起句에서는 頷略歸하여 금강산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난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承句는 起句에서 느끼는 감흥을 거대한 자연 풍광 앞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의미적인 감흥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을을 맞는 나그네의 모습, 가장 인간적인 면모로 그려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개를 감상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실제 풍경 묘사를 통해 담담하게 표현했다.

轉句는 낮 동안의 거대한 금강산 구경을 차분하게 돌아보는 상황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양사에서 쉽게 잠들지 못하고 향을 태우는 행위를 통해서 작자의 삶에 대한 관조의 시간을 갖는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結句에서는 공자의 제자였던 거원이 나이 오십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다고 古事를 인용함으로써 삶에 대한 철저한 자신의 반성을 토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

비록 이 詩에 金剛山의 直接的인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탄핵과 비방의 함난한 정치생활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여행을 통해 人生無常의 苦吟을 표출하고 있다.

< 火龍潭 > 潭上懸瀑三級 最爲奇絶

幾道飛泉躡匹縑	여러 갈래 나는 샘물 늘어진 비단 같은데
渟爲鬻釜瀉爲簾	고이면 가마솥 되고 흐르면 주렴이 되네
乍看熟視形難似	잠시 보건 자세히 보건 모습 같기 어려우니
一曲千回坐未厭	한 굽이에 천 번 휘돌아 앉아 있는 것 지루하질 않네
轟奪雷聲驚耳股	물소리 뇌성을 빼앗아 귀를 놀라게 흔들고
濺和山氣撲衣霑	쏟아지는 물 산 기운 어우러져 옷에 부딪쳐 젖어드네
謫仙豪思徐凝惡	謫仙의 호방한 생각 느리고 막히는 건 싫어했으니
試鬪天真退筆尖 <sup>77)</sup>	시험 삼아 천진과 다투다 붓 끝 멈추었네

이 詩는 火龍潭에 펼쳐진 세 갈래의 폭포가 이루는 장관을 묘사한 것이다. 화룡담은 萬瀑八潭 가운데 맨 위쪽에 있는 둥글면서 깊은 못이다.

首聯에서는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늘어진 비단처럼 떨어져 가마솥처럼 둥글고도 깊은 화룡담에 모였다가 다시 흘러가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

77) 『湖陰雜稿』, 『關東日錄』, <火龍潭>

다.

頷聯에서는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화룡담의 모습이 지루하지 않을 만큼 기이하다고 묘사하고, 頸聯은 청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생동감 있는 묘사를 하고 있다.

尾聯의 天真이라는 시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世波에 젖지 않은 自然 그대로의 참됨과 不生·不滅의 참된 마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 天真이라는 시어를 사용한 것은 자연의 미적 경지를 가치화하는 표현이라 말할 수 있다.

湖陰은 여행을 통해 火龍潭의 자연 경물을 바라보면서 변화무쌍한 인간사의 모습을 詩를 대신해 읊조리며, 자연에 파묻혀 그 자체만을 즐기고 있다.

< 落山寺 >

寺界窮波地接虛	절 경계는 파도 다하는 곳에 허공에 접하였고
上方臺殿壓歸墟	절의 전각 큰 골짜기를 누르고 있네
銀山亂碎馮夷窟	은빛 산은 河伯의 굴을 어지러이 부수고
貝闕中涵海若廬	조개궁궐은 海神의 집을 적시고 있네
靈感修因開淨域	신령한 감응으로 업보 닦으니 깨끗한 땅 열리고
人天鍾異護僧居	사람과 하늘 신이함을 모아 절을 보호하네
軒窓一覽通暘谷	다락의 창에서 한 번 보니 양곡과 통하고
紫氣輪囷浴日初 <sup>78)</sup>	붉은 기운 커지더니 해가 막 목욕하였구나

金剛山 遊覽을 마친 湖陰은 동해안을 따라 지나오다가 落山寺에 들어서 日出을 보고 쓴 詩이다.

首聯구에서는 절 바로 앞에 까지 파도가 치고 그 위에 골짜기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자리 잡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절의 위치와 주변 경관을 묘사하고 있다.

頷聯은 큰 파도가 치는 모습을 상상하듯이 묘사해 낸 구절이며, 파도가 부서지는 것을 바다 속에 있는 水神인 河伯의 굴을 부순다고 하였다. '中涵'은 조개껍질이 바다의 신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 이를 적신다는 뜻이며, 실제로 조개껍질이 바다로 들어가 물에 잠긴다는 뜻을 거꾸로 쓴 것이다. 따라서 거센 파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頸聯에서는 절에 계시는 스님을 묘사한 구절이며, 부처에 귀의하여 수도하

78) 『湖陰雜稿』, 『關東日錄』, <落山寺>

는 스님을 위해 하늘과 사람이 신이한 것을 모았다고 하여 빼어난 절 주위의 경관을 읊조리고 있다.

尾聯의 上句에서는 작자가 창가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며 暘谷의 기운을 느끼고 있고, 下句는 일출의 광경을 다채롭게 묘사하고 있다.

湖陰은 이 詩를 통해서 여정의 愁心을 日出을 통해 벗어나고자 함이 강렬하게 드러나 있다.

< 寓平昌 用鄭三峯韻 >

客行飲水今四旬	객지로 다니며 얼음을 맛보기 이제 4개월인데
關路迢迢穿石角	북쪽 길이 멀고 돌부리에 괴로왔네
碧雲謾費賦擬篇	푸른 구름에 부질없이 시편 짓는 데 소비하였고
黃犬難憑遞書尺	누런 개는 편지를 전해주지 못하네
楓岳高張畫幾重	금강산 높아 몇 겹의 그림 펼친 듯하고
鏡湖澄涵天半壁	경포호 맑아 하늘의 푸른 빛 적시네
我來所得亦已多	내가 와서 얻은 바 또한 이미 많으니
老大還非少年樂 <sup>79)</sup>	나이 들어도 도리어 젊었을 때 즐거움이 아닌가

이 詩는 關東遊覽을 마치고 평창에 머물면서 鄭三峯<sup>80)</sup>의 詩를 次韻하여, 유람에서 보고 느낀 것을 회상하며 읊은 것이다.

이 詩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치에 대한 회의나 인생의 괴로움은 표현하지 않았고 그림 같은 금강산과 경포호의 모습을 회상하며 유람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만끽하며 만족스러운 작자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首聯과 頷聯에서는 먼 길을 떠난 여정의 피로와 고단함을 말하고 있지만 여행을 통한 즐거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

頸聯에서는 금강산과 경포호의 아름다운 절경을 한 폭의 산수화를 그리듯이 묘사하고 있다.

尾聯은 關東遊覽을 마무리하면서 작자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79) 『湖陰雜稿』, 『關東日錄』, <寓平昌 用鄭三峯韻>

80) 鄭三峯/ 鄭道傳

고려 말기에서 조선 전기의 문인·학자(1342~1398). 자는 종지(宗之). 호는 삼봉(三峯). 이색의 문인으로, 조선 개국 일등 공신이 되었으며 성리학을 지도 이념으로 내세워 불교를 배척하였다. 전략, 외교, 법제, 행정에 밝았으며 시와 문장에 뛰어나 《고려사》 37권을 개수하고, <납씨가>, <신도가> 따위의 악장을 지었다. 저서에 《조선경국전》, 《경제육전》과 문집 《삼봉집》 따위가 있다.

깨달음 또한 많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 구절은 詩를 대표하는 인생무상의 심상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

< 南江 >

清遊窮後浦	맑은 놀이는 뒷 포구에서 다하였는데
佳賞復南江	아름다운 경치 구경 남강에서 다시 하네
跋扈魚跳一	통발을 거두니 물고기는 하나같이 뛰고
衝人雁起雙	사람에 부딪힐 듯 기러기 쌍으로 날아 오르네
天開雲縱嶽	하늘에 구름 걷히니 금강산이 나오고
篷缺日烘窓	돛배 이지러지니 햇빛에 그을리네
亂酌醒堪解	어지러이 대작하니 숙취 풀려 견딜 만하고
羈愁又受降 <sup>81)</sup>	나그네의 시름 또한 사라지네

金剛山으로 가는 길에는 南江이 위치하고 있는데, 南江가에는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붉은 기운을 띠는 깎아지른 듯한 赤壁이 있어 사람들이 이곳에서 배를 타고 그 경치를 즐겼다고 한다.<sup>82)</sup>

湖陰도 배를 타고 술을 마시며 이 시를 읊었다.

首聯의 上句에서 清遊라는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俗塵을 떠나 自然을 즐기는 호음의 내면적 심상을 잘 표현해 내고 있다. 下句는 남강이라는 여행지에서 여정의 감회를 새롭게 드러내고 있다.

頷聯에서는 '魚, 雁' 生物의 움직임을 통해 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頸聯은 작은 돛배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치에 興趣하여 여정의 즐거움을 한층 고조 시키고 있다.

尾聯에서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숙취를 풀기 위해 해장술을 마시면서 나그네의 시름을 여행을 통해 풀어내고 있다.

이 詩는 湖陰이 나그네의 苦吟을 여행을 통해서 잘 토로한 작품이다.

< 仇谷驛 >

脫險就官路	험한 곳을 벗어나 관로로 나아가니
曠然情境舒	텅빈 정경이 펴는구나

81) 『湖陰雜稿』, 「關東日錄」, <南江>

82) 李鍾默, 『前期文人の 金剛山 유람과 그 문학』, 韓國漢詩研究6 太學社, 1998.

山晴明赤葉	산에 비가 개니 붉은 잎이 밝게 보이고
江晚落清虛	강에 해 저무니 맑은 허공이 떨어지는 듯하네
飢渴心元熟	굶주리고 목마름은 본래 익숙해졌으니
驅馳氣不除	수레를 달려오다 숨이 가쁘구나
平生行役債	평생 행역의 빚이 있으니
高臥敢求餘 <sup>83)</sup>	실컷 쉬는 것 감히 구하네

이 詩는 관동지방을 유람하러 떠나는 길에 구곡역에서 잠시 들렀다가 읊은 것이다.

首聯에서는 脫險은 탄핵으로 의령지방에서 칩거한 생활을 모습을 묘사했으며,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기 전에 관동지방으로 여행을 떠나지만 홀가분한 마음이 아닌 것을 드러내고 있다.

頷聯의 上句 '赤葉'이라는 시어로 계절상 단풍이 물든 가을을 나타내고, 下句는 해가 저물어 어두운 하늘을 마치 작자가 느끼고 있는 여행의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頸聯에서 飢渴이라함은 그 동안 의령에서 은거생활에 대한 시름을 읊조리고 있으며, 驅馳라 하여 벼슬살이의 고단했던 감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尾聯에서는 자신의 잘못된 행실로 정치적으로 누가 되었지만, 잠시나마 여행을 통해서 잊으려는 흔적이 역력하다. 한편으로는 관직생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湖陰은 이 詩를 통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행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평탄치 못할 자신의 관료생활을 근심하고 있다.

이 詩를 통해 湖陰의 불안한 내면적인 부분이, 여정의 愁心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宿酒泉縣 >

軟飽高春後	배불리 먹어 얼큰히 취해
枯梧策睡功	죽은 듯이 단잠을 자네
樓明斜納日	누각이 밝으니 저녁 해가 들었음을 알겠고
灘淺細含風	얕은 여울에 가늘게 바람 부는 줄을 짐작하겠네
雲液崖猶泫	구름의 津液은 산벼랑에 아직도 젖어 있고

83) 『湖陰雜稿』, 『關東日錄』, <仇谷驛>

香槽石已空      향기로운 물통에는 방아 찧는 돌이 비어있네  
 我行非定遠      나의 길이 멀지 않음을 알았기에  
 還到酒泉中<sup>84)</sup>     酒泉가운데서 쉬어가네

酒泉縣이라는 곳에 숙박하면서 지은 詩로 여행의 즐거움이 절정에 이르러  
 읊은 것이다.

首聯의 軟飽라는 시어는 중국 남방에서 飲酒를 가리키는 말로써 작자가 배  
 불리 먹고 취한 다는 뜻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배부름과 얼큰히 취한 덕택  
 으로 단잠을 청하는 작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頷聯에서는 단잠에서 비몽사몽 깨어나니 밤이 되었고, 가는 바람이 불어  
 살랑살랑 灘淺의 물결을 일으키는 것을 단순하게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  
 다.

頸聯은 주변의 경물들이 시각적인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上句에서 雲液은 구름이 질게 산벼랑에 걸 터있음을 강한 생명력의 형  
 태로 묘사하고 있다.

尾聯에서는 조정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돌아가기 전 잠시 酒泉에 머무름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정의 복귀를 원했던 마음이 표출되고 있다.

이 詩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본다면, 山水遊覽을 통한 주변경관의 흥취에  
 빠져서 작자의 고단한 내면보다는 희망적으로 변하는 심상을 유유자적하게  
 전개하고 있다.

< 驪江道中 >

曉打驪江路      새벽에 驪江 길을 떠나는데  
 繁霜客袖翻      번거로운 서리에 나그네 소매가 펄럭이네  
 月低山上耿      달이 나직이 뜨니 산 위가 밝아오고  
 煙漲野中昏      연기가 일어나니 들 가운데가 어두워지네  
 墟迥纔分色      터가 멀어서 겨우 빛깔을 구별하는데  
 波濺不見源      물결이 일어나서 근원이 보이지 않소  
 幾時機始息      어느 때에 세속 일을 쉬고서  
 宿債答乾坤<sup>85)</sup>      묵은 빚을 하늘 땅에 갚으리오.

84) 『湖陰雜稿』, 「關東日錄」, <宿酒泉縣>

85) 『湖陰雜稿』, 「關東日錄」, <驪江道中>

이 詩는 驪江을 지나면서 湖陰의 여행에 대한 苦吟을 잘 표현하고 있다.

首聯에서는 시간상 새벽을 나타내며 계절상 가을이기도 하다. 나그네가 느끼는 쓸쓸한 심정을 소매가 떨리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頷聯은 달이 뜨면서 해가 지는 시간의 변화 과정을 주변경치와 조화시켜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으며, 頸聯은 頷聯의 어두움으로 길을 걷기가 힘들다고 표현하고 있다.

尾聯에서는 속세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이치에 대입시키고 있다.

이 詩는 여행을 통해서 바라보는 自然景觀과 시간의 변화에서 느끼는 작자의 人生無常의 苦陰을 잘 표출시키고 있다.

< 卽席 復以對月那無酒 分韻爲古體 > 제1수

驪江抱郭去	驪江은 성곽을 안고 흘러가니
明媚吾所愛	아름답고 고움은 내가 아끼는 바라
放舟水雲鄉	물위에 뜬 구름 가득한 곳 배 띄우니
共賞人何在	함께 즐길 이 어디 있는가
屢逢詩酒場	시 읊고 술 마실 곳 자주 만나지만
弱力避強對	힘이 약해 억지로 대하는 건 피한다네
向時自由身	예전엔 자유로운 몸 이었으나
不亂魚鳥隊 <sup>86)</sup>	물고기 새떼들 함부로 하진 않았네

이 詩는 위의 驪江道中の 제목의 詩와 같은 장소에서 읊은 것으로, 여강은 여주에 위치하여 작자가 여주에 도달하여 한가롭게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읊조리고 있다.

首聯에서는 驪江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듯 표현하고 있고, 頷聯과 頸聯은 힘없는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며 현실에 대한 입장을 어떤 상실감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尾聯에서는 이러한 시적 분위기를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와 마음껏 울 수 있는 새로 자연과 조화롭게 일치하여 새로운 세계로의 경지로 이르고 싶어 하는 작자의 내면세계를 엿 볼 수 있다.

湖陰은 驪江이라는 곳을 지나가며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며 벼슬에 집착했던 마음을 비우려는 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86) 『湖陰雜稿』, 『關東日錄』, <卽席 復以對月那無酒 分韻爲古體>

< 廣陵早發 >

將期致命朝金闕	장차 致命하여 금궐에 조회하려고
恍惚通宵枕未安	밤새도록 조심하여 잠을 이루지 못 하였네
側耳荒鷄何許哭	귀 늘어뜨리고 누린 닭 울기를 어찌 하라하겠는가?
警眠官燭及晨殘	잠자리를 경계하는 관의 촛불은 새벽에야 꺼졌네
靑門車馬行穿闕	靑門의 수레와 말은 시끄러운 데를 지나면서 살피고
紫陌塵埃試拂冠	도성길의 티끌은 관에 앉을까 염려되네
歸檢詩囊添瓦注	돌아가서 詩 주머니와 瓦注 <sup>87)</sup> 를 검토하고
神交輸與謹齋看 <sup>88)</sup>	神交인 謹齋 <sup>89)</sup> 선생과 함께 보았으면 하네.

關東地方의 遊覽을 여정에 따라 끝을 내며 조정의 부름으로 廣陵에서 일찍 떠나 서울로 발걸음을 옮겨서, 지난밤에 잠 못 이루고 설레임으로 가득찬 작자의 마음을 읊은 詩이다

首聯에서는 致命이라 하여 목숨까지 내 놓을 정도의 각오로 朝會에 늦지 않게 참석하려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頷聯은 수련에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함을, 한층 고조시켜 잠자는 것을 거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頸聯과 조정의 부름을 받고 흥분과 초조함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冠服에 티끌 한 점이라도 묻혀 더러워질까 염려스러워 하고 있다.

尾聯은 여행을 통해서 지은 작자의 詩와 그 외 선현의 詩집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詩作능력이 한층 발전되었음을 謹齋선생의 업적에 비유하며, 조정으로 빨리 돌아가고자 함이 드러나 있다.

이 詩는 湖陰이 관동지방과 그 주변을 여행하면서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여정을 마무리 하면서 지은 것이며, 작자 자신의 강한 패기와 자신감으로 충만하여 앞으로의 官僚生活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다.

이상으로 湖陰의 東東日錄에 수록된 시들을 위주로 살펴보았는데, 작자는

87) 瓦注, 原註 " 安公軸號謹齋 嘗著關東瓦注 " 안축공의 호가 謹齋이고, 그가 일찍이 관동와주를 지었음

88) 『湖陰雜稿』, 「關東日錄」, <廣陵早發>

89) 安軸(안축) / 고려 말기의 학자(1287~1348). 자는 당지(當之). 호는 근재(謹齋). 젊어서 원나라의 제과(制科)에 급제하고 충렬, 충선, 충숙 세 왕의 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작품에 경기체가인 <관동별곡> 과 <죽계별곡>, 저서에 문집 《근재집》이 있다

관동유람을 통하여 주변자연경관을 아름답게 읊조리면서 반면에 작자는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며 헛되게 욕심 부렸던, 벼슬살이에 강하게 집착한 자신을 반성하며 깨닫고 있다.

#### IV. 湖陰 詩의 文學史 意義

湖陰 鄭士龍이 活動하던 시기는 政治·社會的으로 혼란했지만, 文學界는 활발하고 당대에 文士들로 하여금 풍부한 문학작품이 창작 되어졌다. 이 시기는 주자학의 문학관으로 宋詩風이 주류를 이루다가 宣祖朝에 이르러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반발의 모습을 내보이기 시작한 宋詩風이 唐詩를 배우자는 문학풍조로 바뀌게 되었다.

成宗代부터 급격히 진출한 신진사림의 대두와 정치와 문학의 이념 이상 혼란과 갈등이 자심하던 때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 文衡을 맡아 서거정 이래 완성된 훈구관료의 통치이념과 사장문학을 옹호하는 일면, 문학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던 成愼<sup>90)</sup>은 사림들의 道와 文을 一途連續의 결합체로 보는 道本文末의 문학관을 비판하는 많은 논설을 남김으로써 사림은 물론, 사장문학의 자기모순도 다양하게 개선 발전시킨 제일의 문예이론 및 실천가였다. 그는 서거정과 달리 스스로 爲人이 소인임을 자인하고 治人보다는 文人이기를 자처하기도 하였다<sup>91)</sup> 成愼 이후 훈구세력이 아닌 김종직의 문인이면서 경술보다는 詩文으로 成宗의 총애를 독차지 했던 유희인(1445~1494), 조위(1454~1503), 김일손(1464~1498) 등은 뛰어난 詩句와 바다와 같은 文力으로 疏章과 劄子の 글을 전담했었다. 반면에 훈구과 일원으로 조광조 일과

90) 成愼 (1439 - 1504), 조선(朝鮮) 시대(時代) 9대 성종(成宗) 때의 문신(文臣)·학자(學者). 자는 경숙(敬叔), 호는 용재(慵齋)·허백당(虛白堂) 또는 부휴자(浮休子). 본은 창녕(昌寧). 7대 세조(世祖) 8(1462)년 문과(文科)에 급제(及第), 대사간·대제학(大提學)까지 지냄. 예악(禮樂)에 밝고 문장(文章)에 뛰어났음. 『악학궤범(樂學軌範)』을 편찬(編纂)하고 조선(朝鮮) 시대(時代) 초엽(初葉)의 정치(政治)·사회(社會)·제도면을 살피는 데 중요(重要)한 자료(資料)가 되는 『용재총화(慵齋叢話)』를 지음. 저서(著書) 『허백당집(虛白堂集)』 『보집(補集)』 등.

104) 金甲起, 『韓國 漢詩 文學史論』, 이화문화출판사, 1998 .

"성현의 문학이론(浮休子談論) - 事大交隣의 華美한 문장을 경시할 수 없다. 는 실용주의적 사상론을 전개했다. 아울러 유가의 道文一致를 바탕으로 하되, 文의 내용 보다는 인간 고유의 정서가 개성에 따라 자유롭게 표출되어야 한다는 진보적 문예론을 제시했다."

105) 金昌協, 『龔巖集』

"世稱湖蘇芝 然三家詩 實不同. 湖陰 組織鍛鍊 頗西崑體 而風格不如蘇, 芝川矯健奇崛 出自黃陳 而宏放不及蘇 蘇齊其最 優乎"

를 제거한 후 대제학을 거쳐 좌의정에 올랐던 德水文脈의 좌장 李荇(1498~1504)과 海東 江西詩派의 맹주로 조선조 500년 이래의 으뜸이라는 朴闇(1470~1504)은 한 시대의 대표들 이었다.

서거정과 성현 이후의 대표적인 館閣三傑은 湖(湖陰 鄭士龍)·蘇(蘇齋 盧守愼)·芝(芝川 黃廷彧)다. 유명한 김창협(金昌協)의 비교합평을 살펴보면, 노수신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다.

三家의 詩는 실로 같지 않다. 정사룡의 시가 짜임과 시어의 조탁은 자못 西崑體와 근사하나 풍격은 노수신만 같지 못하고, 황정욱의 시는 굳세고 건장하며 기이하고 웅장하여 황정견과 진사도에서 나왔으나, 평평하고 방일함은 노수신에 미치지 못한다<sup>92)</sup>

이상 湖陰 詩의 文學的 意義를 살펴보기 전에, 鄭士龍이 살던 前·後시기 문학의 흐름을 대강 정리해 보았다.

湖陰의 시가 당대 또는 후대에 어떻게 인식되어 평가되는지는 文學的 意義를 정립하고자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鄭士龍의 詩 世界를 이해하는데 諸家들의 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다양하게 연구되어진 여러 詩話書를 토대로 文學史的 位相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湖陰은 館閣文人으로서 사행과 접반 업무를 통해 이루어진 관료생활에서 지어진 시들이 많기에, 혹 館閣性이 없는 評일지라도 작자의 詩세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館閣三人중의 한 사람으로서 宋詩風을 숭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宋詩와 唐詩의 도식적인 구분은 어렵지만 鄭士龍은 宋詩風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詩 세계를 적용했다. 이 당시 宋詩風에서 唐詩風으로 전환되는 시기라서 湖陰의 文學은 중요한 교량적 역할을 했기에 관심 있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 초의 시체는 네다섯만 변한 것이 아니다. 조선 초에는 고려시대의 여풍을 이어 순전히 소식만을 배웠다. 성종·중종 연간에 이르러 오직 용제 이행만이 대성했다고 칭찬하였다. 중간에 황정견을 참조한 것은 곧 읍취현 박은의 제주이니, 실로 300년에 한번 나올 사람 이었다. 또 변하여서 오로지 황정견과 진사도만 배웠으니 호음 정사룡, 소재

노수신, 지천 황정욱 삼인이 우뚝 솟아 있었다. 또 변하여 당풍으로 돌아갔으니 최경창, 백광훈, 이달이 뛰어난 자들이다<sup>93</sup>).

洪萬宗도 '湖蘇芝' 세 사람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詩에 있어서 이름난 사람들이라고 하였는데 湖陰이 館閣文人으로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과거제의 실시와 事大交隣이라는 당시의 상황 때문에 조선시대의 漢詩 文學이 그 어느 시기보다 융성하였기 때문이다.

조선 건국 초 경전위주의 과거를 시행하여 통치이념과 제도를 확고하게 하려했지만 이후 경학보다는 사장을 중시하는 풍조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事大交隣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인 것이다. 조선과 명나라는 외교 관계로 사신들의 행차가 잦았고, 초기에 중국에서는 환관을 사신으로 파견했다가 조선의 文化水準이 높아진 세종 조에 이르러 문신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파견하기 시작했다.

명나라 사신이 도착하면 조선에서는 원접사를 파견하여 맞이하였는데 이때 詩文을 창수 하였다.

역사상 대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조선은 외교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고 문화적으로 동급을 누리기 위하여 詩文이 가지는 교린의 기능을 중시하였고 따라서 중국 사신의 氣를 글로써 꺾어 그들의 중화주의를 누르고 외교적 실리를 차지 할 수 있도록 文才가 뛰어난 사람들로 구성하여 원접사로 선발하였다. 湖陰은 중종(16년, 32년, 34년) 명종(원년) 모두 네 차례 걸쳐 중국 사신을 맞이하고 창수에 참가하였다.

湖陰이 중국 사신과 酬唱한 詩에 중국을 높이며 중국의 문화를 흠모하는 중화세계를 동경한 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館閣文人으로서 특징인 賦의 형식 이라든지 다른 형식의 시는 드물고 산문의 양 또한 많지 않은 것은 외교접반 업무에서 일생을 보냈기 때문이다.

시를 지을 때 운율에 고심하여 만족할만한 문자의 배합에 이를 때까지 여러 차례 수정을 하였다<sup>94</sup>).

93) 金萬重, 『西浦漫筆』, 619면 참조.

94) 양경우, 『제호시화』, " 每湖陰作詩 安字未采 必問松溪 松溪屢下字 可其意 湖陰深許之然 "

글 짓는데 잘 쓰이지 않는 고사를 인용하는 것을 능사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문인의 병이라고 생각한다. 근년에 정사룡이 여러 서적에서 종류별로 글을 뽑아 큰 주머니에 넣어서 글을 지을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그것을 지니고 다녔다. 그러므로 그의 시는 역지로 끌어다 붙인 것과, 조탁한 흔적이 많아 평온한 기상이라곤 전혀 없으니 대체로 이병 때문이라고 평했다<sup>95)</sup>.

위의 시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湖陰은 詩를 짓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였는데 漢詩는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사대부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 각종 모임이나 연회에서 운을 내어 형식과 글자 배열의 교묘함을 중시 여겼던 것이다. 즉 품격을 중시한 湖陰은 近體詩에서 필요한 구수, 평측, 대우 등을 엄격히 여겼다.

< 大灘 >

轟輻車千兩	삐걱삐걱 수레 천 대가 움직이는 듯
喧闐鼓萬槌	요란하게 만 개의 북을 두드리듯
篙工心欲細	벳사공 마음이 졸아들려하고
病客膽先摧	병든 나그네는 간담이 먼저 꺾이네
振鷺衝巖起	해오라기 무리 짓는 듯 바위에 부딪쳐 일어나고
跳山入座回	산이 뛰어오르는 듯 자리에 돌아 드는구나
片帆愁激射	조각배는 거센 물결에 부딪칠까 근심하셔서
欹側岸邊來 <sup>96)</sup>	기우뚱 강 언덕가로 나오는 구나

湖陰의 詩는 江西詩派적 영향을 받아서 험박하고 기이한 단어를 구사한다는 評을 받고 있는데, 湖陰 詩에서 자주 보이는 장엄한 경물 묘사를 통해 비분과 강개를 의탁한 방식으로 宋의 황정견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아래의 大灘이라는 詩에서 격동적이며 그가 부딪히고 있는 실제상황을 경물에 묘사하여 드러내고 있다.

湖陰의 館閣詩 외의 自然詩 부분은 사립과의 자연시의 이념과는 다르게 체계화 되어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드러난 경우도 대단히 희박하다. 그러나 사립과 문학이론을 수용하지 않은 관각문인으로서, 문인이 가지는 자각

95) 李晔光, 『芝峯類說』, " 余謂爲文而以編綴用事, 爲能者, 乃文人之病也, 頃世鄭士龍, 類抄諸書, 盛以大?, 每有製作, 必以自隨, 故其詩多牽 補斧鑿之痕, 絕無平穩底氣象, 皆亦坐此病耳 "

96) 『湖陰雜稿』, 「北上錄」, <大灘>

위에서 일상생활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오히려 공교함을 잃지 않은 자연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館閣文人으로서 드러낼 수 없었던 愛民意識이 담겨진 작품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은 관각문인의 한계로 평가 할 수 있다.

물론 湖陰 鄭士龍이 經世濟民의 자체에 배타적인 시각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詩文 외에 그가 남긴 글 속에 호음잡고 권8의 「黃海道官軍永定便否讓」, 「旅外破定水軍讓」와 같은 군사제도 문제에 관심을 표했으며, 「庶擊許通便否讓」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진 면모를 보이고 있다.

## V. 結論

湖陰 鄭士龍은 館閣文人의 일인자로서 사행과 접반 업무 중심의 官僚生活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적지 않은 시들을 남긴 사람이다. 湖陰이 활동하던 16세기 조선조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다. 또한, 문학적으로는 宋詩風이 唐詩風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였으며, 문인층의 확대로 인하여 질적·양적으로 많은 詩作이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湖陰은 官僚期의 대부분을 사행과 접반을 하면서 화려한 정치생활을 영위한 듯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평생을 탄핵과 비난에 시달리면서 田園生活을 해야만 했던 인물이다. 그동안 湖陰의 官僚期의 詩作品에 대해서는 그 화려한 색채와 독특한 형식적 특성으로 인하여 비교적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그의 閑居期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그의 詩世界를 官僚期의 詩와 閑居期의 詩로 양분하여 살펴보았다.

官僚期의 詩에서는 화려한 색채가 묻어나는 사행과 접반 업무를 수행하던 시기에 지어진 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以文華國'의 사명을 가지고 詩作에 골몰하였으니, 그의 詩는 사대적 성격을 지니기는 하지만 이는 당시 조선의 상황과 맞물려서 본다면 '사대'라기 보다는 관료적 사명감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의 官僚期 詩들이 부화한 詩들만이 주를 이루는 것은 아니었다. 반복된 사행 일정에서 오는 고단함, 오랜 기간 타향에서 생활한 향수의 정서가 묻어나는 詩作品들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으니, 이를 통해 湖陰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다음 閑居期의 詩에서는 자의던 타의던 간에 관직에 있는 기간에 준하는

시간을 전원에서 지내야했던 湖陰의 생활상이 드러나 있는 詩作品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도 당시 사대부들의 보편적인 정서였던 출사간의 갈등을 지니고 있었기에, 관직에 있으면서 歸去來를 열망하는 詩作品을 남겼으며, 향촌에 귀의하고 나서는 때로는 자족감의 표출로, 때로는 人生無常의 정서로 자신의 내면 갈등을 詩를 통해 표현해 내었다. 또한, 그가 山水 遊覽을 하면서 지은 詩作品 分析을 통해 그의 閑居期의 생활상을 한층 더 두텁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湖陰은 “사룡의 문사가 당대 제일이다.”, “사룡은 문장으로 큰 명성을 이뤘으니 조사를 접대하며 가장 큰 칭찬을 받았다.”는 등의 실록의 기록을 통해서 당시 그의 문인으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인정받았던 문인이며, 또한 남용익으로부터 소재 노수신·지천 황정욱과 더불어 館閣三傑의 명칭을 얻는 등 한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다.

본고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면서도 그의 閑居期 詩作品들에까지 시선을 확대하여 그의 生涯 전면을 살펴보았다. 이는 湖陰을 ‘官僚 鄭士龍’만이 아닌 ‘人間 鄭士龍’으로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만, 본고는 湖陰 詩作品의 다양한 주제별 분류에 논의의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에 그의 형식적인 특징을 고찰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놓는다. 또한, 湖陰은 儒·佛간의 대립이 심하였던 당시에 있어서 유학자이지만 불교를 반대하지 않았으며, 寺刹을 遊覽하며 불교를 포용하는 시각을 견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니 추후 그의 佛敎詩에 대한 研究와, 思想에 대한 재조명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간의 ‘館閣詩’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湖陰 詩에 대한, 더 나아가 鄭士龍이라는 인물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때, 그의 漢文學史的 位相 또한 재정립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1. 基本資料

- 鄭士龍 < 湖陰雜稿 > 한국문집총간 25.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98  
李荇 < 容齊集 > 한국문집총간 20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90  
許筠 < 國朝詩刪 > 아세아 문화사, 1983  
< 朝鮮王朝實錄 > 중종·명종·선조·修正實錄편  
金萬重 < 西浦漫筆 > 한국사화총서 4. 동서문화사 1989  
申欽 < 晴窓軟談 > 아세아 문화사 1980

### 2. 著書類

- 이향배 한국한시비평론 < 성리학을 중심으로 > - 이회출판사. 2001  
조용희 조선 중기 한시 비평론 - 한국문학사. 2003  
金台俊 朝鮮漢文學史 - 심산 출판사. 2003  
李丙疇 韓國 漢詩의 理解 - 민음사. 2000  
李鍾默 海東江西詩派研究 - 태학사. 1995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 태학사. 2002  
前期 文人 의 金剛山 遊覽과 그 文學  
<韓國漢詩研究 6> - 太學社.1998  
姜慧仙 鄭士龍의 생애와 시세계 < 韓國漢詩作家研究 4 > -태학사. 1999  
유홍준 금강산 - 학고재. 198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2005  
조종업 韓國漢詩研究 - 태학사. 1998  
강석중 조선시대의 한시 - 문헌과 해석사. 1999  
민병수 金剛山 詩의 代表的 評說 < 韓國漢詩研究 6 > - 태학사. 1998  
韓國漢詩史 - 태학사. 1996  
박수천 한국 한시 비평의 연구 - 태학사. 2003  
윤인현 한국 한시 비평론 - 아세아 문화사. 2001  
백운복 시의 이론과 비평 - 태학사. 1997  
심경호 한국 한시의 이해 - 태학사. 2000

- 金甲起 韓國 漢詩 文學史論 - 이화문화출판사. 1998  
 조영호 15세기 관료문인의 한시 연구 - 한국학술정보(주). 2005

### 3. 論文類

- 김성연 韓國 館閣詩研究 - 고려 및 조선전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 김기림 容齊 李荇의 漢詩研究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서수용 湖陰 鄭士龍 文學 研究 한문학 연구 6집  
 대동 한문학 연구회. 1990
- 이승화 蘇齊 盧守愼의 漢詩研究  
 단국대 대학원. 1993
- 이혜영 湖陰 鄭士龍의 詩 研究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윤채근 鄭士龍 詩의 研究 <自然認識의 變貌樣相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장운혁 湖陰 鄭士龍의 詩 研究 <閑居期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안병학 三唐派 詩 世界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 변중현 高麗期 漢詩의 唐宋詩 受用 樣相과 韓國的 變用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 손유경 모재 김안국의 시문학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변수남 변계량의 문학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조영호 · 春亭 卞季良 漢詩의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15세기 관료문인의 한시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 박경익 16세기 三唐詩人의 唐詩風 研究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 이원걸 15세기 官僚文人의 漢詩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 이동순 김종직 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한재축 三峯 鄭道傳 詩의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이 경 東人詩話에 나타난 徐居正의 文學論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A Study on the Poems of Hoeum, Jeong Saryong

Sook-Hi Park  
Dept. of *Chinese Class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 Abstract

Ho Eum, Jeong Saryong(1491 ~ 1570: King, Seongjong 22 ~ King Seonjo 3) is a person leading the official scholars' literature, Gwan-Gak Literature in the both first term of Chosun and the middle term of Chosun. It is the politically chaotic period when the massacre of scholars in the year of the Hare occurred due to the conflict between Sarim and Hungu factions.

Since in the former term of Chosun, the pen was weighed, people started their official post and adorned their family clan with literary talent, and in the era of King, Yeonsangun, the prosperity of the pen reached the top. As reflection of this tendency, the atmosphere of putting emphasis on the Sung Confucianism was created by Jo Gwangjo after the enthronement of King Jungjong, subsequent to the dethronement of Yeonsangun in order to change the prosperous literary climate. However, it brought about the confrontation with literary men who were government officials, giving birth to the massacre of scholars in the year of Hare. In this era, Ho Eum, Jeong Sa Ryong was a person, leading Gwan-Gak literature, together with So Jae, Roh Su Shin, Jicheon, Hwang Jeonguk.

Investigating the study about Jeong Saryong, which has been carried so far, you can see that his poems are focused on the 'Gwangak poems' compared to the poetic world based on various poems. Accordingly, the need to study about the world of his various works is raised in addition to the Gan-Gak Literature of Hoeum. This paper analyzed 「Jocheonrok」 and 「Hwanghwajapgo」 in the poem collections of Hoeum, 『Hwanghwajapgo』 based on the critical mind. As a result, the poem world of Hoeum is largely classified into 2.

The activities of Hoeum Jeong Saryong, charging the official trip and hospitality of government office, were investigated in the poems of official period, and the internationality of author was explored by examining the weariness of official post, manifested through poems. In the poems of Hangeogi, the aspect of curing the internal conflict through the conversion to nature by homecoming after resignation from a government office, was examined.

It has the different view, raising the discussion in the Gwan-Gak poem of Hoeum, intending to see Jeong Saryong as man, instead of a government official. Thus, the poetic world of various poems, in addition to the unique forms and colors of Haedonggangseosipa, which have been noticed during that time, was discovered. Therefore, I, author of this thesis expects that the position of Hoeum, Jeong Saryong in the history of Classic Chinese Literature, will be re-established through the reexamination of his life and poems.